

碩士學位論文

自然觀에 根據한 傳統마을의
空間 構造에 관한 研究

- 길과 마당을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建設環境工學科

宣 銀 守

2006年

自然觀에 根據한 傳統마을의 空間 構造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哲 民

宣 銀 守

이 論文을 工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7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宣銀守의 工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委 員 印

委 員 印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2006年 7月 日

목 차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3. 선행 연구 고찰	6

II. 새로운 세계관으로서의 유기체적 자연관

1. 서양의 전통적 자연관	9
2. 동양의 전통적 자연관	12
3. 현대의 유기체적 자연관	14
4. 유기체적 자연관의 현대적 관점	17



III. 한국 전통 건축에 반영된 자연관

1.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	23
2. 한국의 자연관의 사상적 배경	25
3. 자연관적 특성이 반영된 한국 전통건축의 구성원리	28

IV. 자연관이 반영된 마을길과 공공마당의 기능과 공간구성

1. 통과와 장소로서의 마을길	33
2. 접점과 중심으로서의 공공마당	40

V. 전통마을 사례 조사 및 분석

1. 마을의 유형	44
2. 대상마을의 구조적 배경	46
3. 대상마을의 마을길과 공공마당의 분석	58
4. 분석 결과 비교 및 고찰	98

VI. 결론

.....	105
-------	-----



표 목 차

Table 1. 기존 연구 동향	7
Table 2. 동양과 서양의 전통적 자연관 비교	14
Table 3. 동양과 서양의 자연환경 비교	24
Table 4. 풍수지리사상과 환경생태학의 비교	27
Table 5. 전통마을의 공간 구성 특징	29
Table 6. 마을길의 기능별 구분	35
Table 7. 마을길의 위계별 구분	39
Table 8. 공공마당의 기능별 구분	41
Table 9. 마을길의 위계별 위치조건	59
Table 10. 마을길의 기능조건	59
Table 11. 마을길의 집합 형태조건과 변환 방법	60
Table 12. 공공마당의 기능조건	61
Table 13. 공공마당의 구성조건	62
Table 14. 공공마당의 물리적 유형 조건	62
Table 15. 하회마을 길의 위계별, 기능별 구성비	64
Table 16. 외암리마을 길의 위계별, 기능별 구성비	66
Table 17. 양동마을 길의 위계별, 기능별 구성비	69
Table 18. 성읍마을 길의 위계별, 기능별 구성비	71
Table 19. 하회마을 길의 변환 방법	72
Table 20. 외암리마을 길의 변환 방법	72
Table 21. 양동마을 길의 변환 방법	73
Table 22. 성읍마을 길의 변환 방법	73
Table 23. 하회마을 길의 길이 분포	75
Table 24. 하회마을 길의 폭 분포	76
Table 25. 외암리마을 길의 길이 분포	77

Table 26. 외암리마을 길의 폭 분포	78
Table 27. 양동마을 길의 길이 분포	80
Table 28. 양동마을 길의 폭 분포	80
Table 29. 성읍마을 길의 길이 분포	82
Table 30. 성읍마을 길의 폭 분포	82
Table 31. 하회마을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류	83
Table 32. 외암리마을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류	85
Table 33. 양동마을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류	87
Table 34. 성읍마을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류	89
Table 35. 하회마을 공공마당의 구성조건별 분류	90
Table 36. 외암리마을 공공마당의 구성조건별 분류	91
Table 37. 양동마을 공공마당의 구성조건별 분류	92
Table 38. 성읍마을 공공마당의 구성조건별 분류	93
Table 39. 하회마을 공공마당의 물리적 유형별 분류	94
Table 40. 외암리마을 공공마당의 물리적 유형별 분류	95
Table 41. 양동마을 공공마당의 물리적 유형별 분류	96
Table 42. 성읍마을 공공마당의 물리적 유형별 분류	97
Table 43. 각 마을길의 물리적 특성 비교 분석	101
Table 44. 각 마을 공공마당의 물리적 특성 비교 분석	103

그 립 목 차

Fig. 1 우리나라 전통마을 분포 및 연구대상 마을 분포도	3
Fig. 2 연구흐름도	8
Fig. 3 유기체적 세계관으로의 전환	16
Fig. 4 그린 어메니티를 적용한 생태적 관점의 심리, 생리적 기능	19
Fig. 5 하회마을 전경 사진	48
Fig. 6 외암리마을 전경 사진	49
Fig. 7 양동마을 전경 사진	50
Fig. 8 성읍마을 전경 사진	52
Fig. 9 하회마을 길의 위계별 분석도	63
Fig. 10 하회마을 길의 기능별 분석도	64
Fig. 11 외암리마을 길의 위계별 분석도	65
Fig. 12 외암리마을 길의 기능별 분석도	66
Fig. 13 양동마을 길의 위계별 분석도	67
Fig. 14 양동마을 길의 기능별 분석도	68
Fig. 15 성읍마을 길의 위계별 분석도	69
Fig. 16 성읍마을 길의 기능별 분석도	70
Fig. 17 하회마을 길의 물리적 특성 분석도	74
Fig. 18 외암리마을 길의 물리적 특성 분석도	76
Fig. 19 양동마을 길의 물리적 특성 분석도	79
Fig. 20 성읍마을 길의 물리적 특성 분석도	81
Fig. 21 하회마을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석도	84
Fig. 22 외암리마을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석도	86
Fig. 23 양동마을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석도	88
Fig. 24 성읍마을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석도	89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Spat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Village in Terms of View of Nature
- in case of Alleys and Yards at Hahoe, Oiamri, Yangdong, Seoungjeup -

Eun-Soo, Sun
Dept.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Chul-Min, Park

Modern cities have caused the urban problem of a quality drop in residential environment like mental unstableness and increase of crimes due to overpopulation and the lack of interchange among residents since urban development focused on economic development. To solve this problem, improvement plans of residential environment centered on community have risen, and it was found that alleys and yards are most recognized as places for community forma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focusing on alleys and yards of ecological elements for community formation, and was to find their originalities from traditional villages.

On the basis of the above backgrou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Village alleys were divided into entry alley, inner road-circular road, inner road-passage, opened alley and closed alley, and this division is based on width and location of an alley. Among these, inner road-passage and opened alley were played a role of places for social life and then community formation either by separating or connecting them.

Ecological properties of these village alleys included unit types of branch type

or radial type, and villages of radial and circular type showed most various functions of an alley.

Public yards have different locations of formation, conditions of formation and physic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lie of the land. For ecological properties by their functions, first, public yards to perform a ceremony were located at the entrance and inside of village and were adjacent to the entry alley and inner road-passage. Second, public yards to perform a production function were formed according to change in width of a village alley and mostly were contiguous to opened alleys. Finally, public yards for rest and amusement were located in the outer block of villages and were embellished by natural elements.

Based on the above results, plans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in modern cities are suggested as follows. ;

First, as a plan to actively utilize an alley in a single residential complex, a circular road and a passage of a village should be divided, and the former should be used as a means for vehicle they should play both roles of activity space for children and place for social life among residents.

Second, an opportunity to meet among residents should be prepared by preparing a public space, a sense of community among village residents should be formed by supervising various village events, and a natural sense of community should be encouraged around a cross in a residential district or an alley with change in its width.

In addition, a sense of community should be guaranteed by introducing elements of landmark in the entrance and center of the village.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found elements for community formation at alleys and yards of Korean traditional villages, and this study will be basic data to plan and design traffic line in exclusive residential complexes. For this, a conversion of recognition from that alleys and yards just have functions of movement and illuminance to that they are places for community formation, and related institutions should be supported.

However,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hat Korean traditional villages investigated in this study cannot represent features of all villages. Therefore, more studies on Korean traditional village should be performed in future and at the same time verification studies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survey and observation of residents.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도시는 경제성장을 위주로 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거대화, 집중화되면서 인구 과밀과 주민교류의 단절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및 범죄의 증가 등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저하라는 도시문제를 발생하였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에 의한 장소적 고유성의 파괴가 기본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다.¹⁾ 또한, 세계를 하나의 보편화된 질서체계로 인식하는 근대의 합리성에 기반한 착상으로 인하여 획일적인 건축환경의 조성과 역사성 및 지역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개발 혹은 성장의 시기를 그 성과로서만이 아니라 이면에 내재한 부정적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된 오늘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지난 근대를 다시 회고해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노력은 건축분야에서도 예외없이 진행되고 있다.²⁾

건축에서 근대성에 대한 반성은 주로 기능주의 혹은 획일주의에 대한 비판과 연관되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근대성에 대한 반성은 건축에 있어 공간론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즉, 근대의 합리주의적 사고는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문화를 영위해 나가는 인간까지도 일종의 기계로 여기는 계기를 심어주었으며 그 결과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가 아닌 타인과의 소통 단절 속에서 단독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근대성에 대한 올바른 반성과 극복은 정통적 형상의 모방이나 무분별한 형태적 시도, 혹은 건축에 대한 키치적 태도 등이 아닌 공간론을 주제로 삼아야 하며, 이때의 공간론은 타인과 더불어 살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기본적인 인간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³⁾

이러한 관점에서 근대를 극복하는 데 있어 동양의 전통적 자연관과 더불어 산다는 공동체성의 회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왜냐하면, 근대성이

1) 계기석, 천현숙,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정비연구, 국토연구원, 2000, p.139

2) 최승진, 우리나라 도시내 역사적 공간형성의 과정과 현실, 도시문제 제21권 6호, 1986, p.57

3) 이영석, 주거환경계획, 신학사, 1984, p.15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후 인간이 자연을 파악, 계산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인간중심주의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고 방식은 나 이외의 다른 인간까지도 사물화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철저히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오늘날의 개인주의가 초래된 것이므로, 자연관과 공동체성의 회복은 이러한 근대성을 넘어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⁴⁾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통마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마을은 자연과 인간을 나누는 이분법적 자연관이 아닌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더불어 생각하는 유기체적 자연관에 근거하고 있으며⁵⁾, 또한 개인과 개인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 길과 마당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공동체적 집단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⁶⁾

이에 본 연구는 현대 건축환경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되는 자연관의 회복과 공동체성 확립의 물리적 요소인 길과 마당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형적 질서를 전통마을에서 찾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거의 모든 요소가 유기체적 자연관의 반영 내지는 공동체성의 구현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정작 중요한 것은 전통마을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 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요소를 보다 더 논리적인 태도로 선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요소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궁극적 목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우리나라의 전통마을에서 대표적인 마을들을 선정한 후,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길과 마당 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입지성이 상이한 전통마을 간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여 공통적인 특성과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같은 전통마을이지만 그동안 함께 연구되어지지 않았던 육지의 전통마을들과 제주의 전통마을을 함께 연구하여 제주의 길과 마당이 가지는 보편성과 지역적 차이점도 도출하려 하였다.

아울러 전통마을의 길과 마당을 통해 형성된 자연관 및 공동체성은 향후 여러 마을 혹은 현대의 주거지에 확대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런 사고 근대의 주거환경에서 드러난 문제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4) 최승선, 우리나라 도시내 역사적 공간형성의 과정과 현실, 도시문제 제21권 6호, 1986, p.57

5) 길성호, 현대건축사고론, spacetime, 2001, pp.47-51

6) Nisijawa T. 저, 이범재, 김병운 역, 외부환경디자인, 기문당, 1984, pp.14-2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전통마을의 생태적 특성 중에서 단위주거의 개별적 특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전통적으로 공동체 형성의 장소로 이용되어져온 공공공간에 주목한다. 전통 주거지는 주민들의 삶을 수용해온 장소이며, 주민과 이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서로 연관되어 상호 작용하면서 일체화된 정주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을은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간직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발전되어온 지속성과 역사성을 가지는 장소이며 공간이다.⁷⁾ 특히 보존상태가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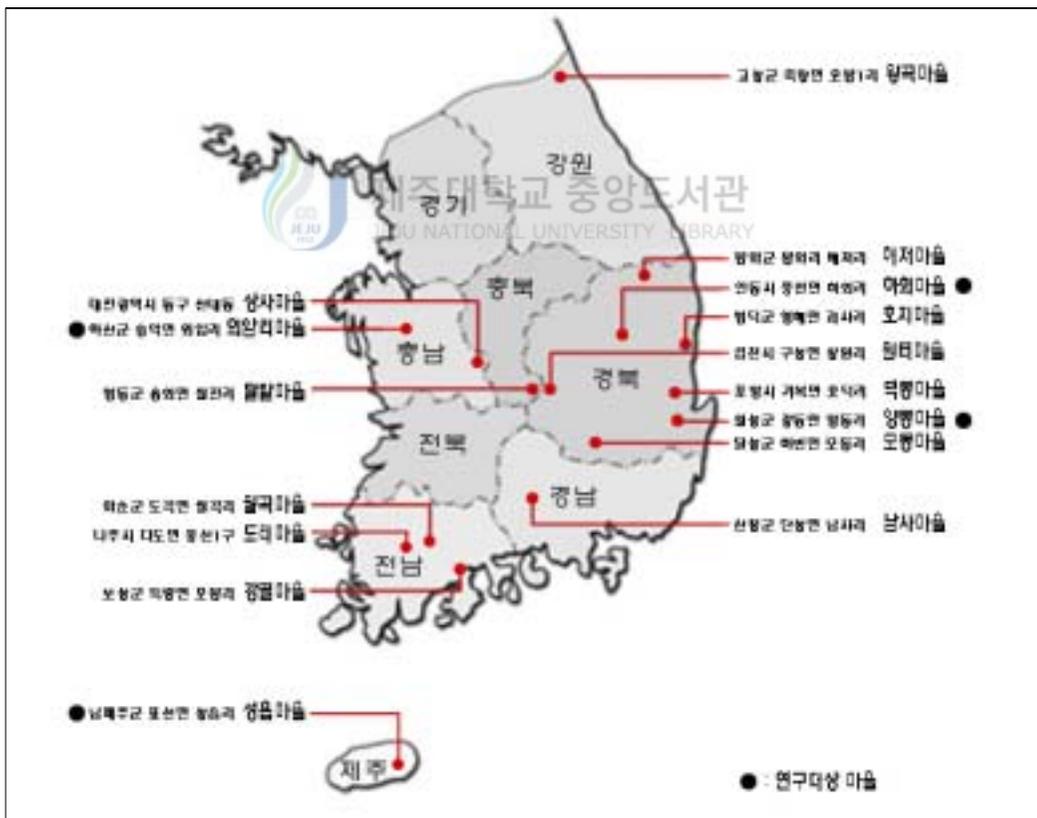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전통마을 분포 및 연구대상 마을 분포도

7) 김희춘, 한국의 전통과 건축, 건축학회창립30주년 기념논문, 1975, p.18

호한 이들 주거지는 조선시대에 그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그 입지와 공간형성 배경은 일반적으로 풍수지리⁸⁾, 유교사상⁹⁾, 민간신앙¹⁰⁾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조선시대의 사회상이 잘 반영되어 있는 주거지들 중 공간체계나 장소, 전통 건축재료(목조)로 지어진 주택 등의 보전 상태가 양호하며, 공간구성적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외래문화의 영향이 비교적 적게 받았다고 판단되는¹¹⁾ 우리나라 주요 전통마을 중 입지적 특성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안동하회마을, 아산외암리마을, 월성양동마을과 씨족 마을은 아니지만 관가 건축이 아닌 제주도 민가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적 읍성마을인 성읍민속마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전통마을의 분포 및 연구 대상 마을의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2) 내용적 범위

우리나라의 전통주택과 마을은 네 가지 관점에서 자연관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기후에 적합한 건축을 하였으며, 둘째 건축재료의 관점에서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했으며, 셋째 에너지 손실 방지 및 보존을 위한 태도를 가졌으며, 넷째 물질순환의 관점을 고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친화적 태도를 이와같이 해석하는 것은 동양 고유의 자연관과는 다르게 주체로서의 인간과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가 전제되어 있으며, 또한 마을 전체의 계획 요소에 대한 관점이라기보다는 재료 등 단위주거에 국한된 관점이라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동서양의 자연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8) 풍수지리는 조선조 개국초기부터 국도풍수로써 큰 역할을 하였으며 마을 또는 주택에 이르기까지 그 입지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마을의 배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뒤흘은 높은 산이 버티고 좌우로 감싸드는 형상이 되며, 앞쪽은 평퍼짐하면서 나지막한 산과 그 사이로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기본형태가 된다. 산과 물에 의해 한정된 생활영역은 아늑하고 포근한 공간이 되며 풍수지리에서는 이를 장풍국, 득수국의 지형이라 일컫는다.

9) 조선시대 사회와 질서의 규범은 유교를 기본 이념(仁, 義, 禮, 知)으로 하여 형성되었으며 혈연 및 생활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았던 마을과 잘 결합되었다. 마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종가사당을 두고 종가를 배치했고 이를 중심으로 마을을 구성함으로써 종가와 사당은 그 마을의 공간적 중심 또는 통로의 목표가 되었다. 그 외에도 장유(長幼), 남녀 및 신분의 구분 등이 마을공간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10) 민간신앙은 불교, 유교, 도교 등 외래종교가 토착하는 과정에서 그 것들과 융화되면서 민중생활의 심층을 점유하여 왔으며 개인이나 가정을 단위로 해서 계승되는 것과 마을을 단위로 해서 동민들에 의해 공동으로 계승되는 것들이 있다. 특히 마을의 수호신을 신앙하는 동신신앙은 마을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모체이며 마을공간 속에 신앙물(장승, 돌무더기, 솟대, 당나무) 또는 장소(신당, 서낭당)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마을의 상징적 위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1) 나한범, 한국 전통마을의 장소성과 그 공간구성 체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p.23-24

통해 자연친화적 태도에 대한 보다 진전된 관점을 밝히는 것이다. 즉 인간과 자연을 나눈 후 인간이 자연을 보호해야한다는 환경보호적 관점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의 친화적 교감 측면으로의 가치관 수정에 유기체적 자연관의 궁극적 목적이 있음을 나타내려 한다. 둘째, 이러한 생태계와 공존하는 자연관으로의 자연친화적 태도는 개개의 공간에서의 개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공공간에서의 공적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가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전통마을에서 공공공간에 해당하는 마을길과 공공마당의 일반적인 의미와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공동체이론의 재정립과 자연친화적 태도 형성을 위한 시설요소를 정리하였다.

이런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분석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각 마을의 길과 공공마당의 기능조건, 형태조건, 구성조건을 조사·분석하여 물리적 및 생태적 특성을 도출하고, 그 특성을 비교고찰 하였다.

아울러 도출된 결과를 통하여 현대주거단지에서 자연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마을길과 공공마당의 활용방안을 제언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예비조사, 실측조사와 인터뷰 및 관찰조사를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양의 전통적 자연관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자연과 인공의 구분,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연과 초자연의 구분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현대에 발전하고 있는 유기체적 자연관이 보다 진전된 방식의 대안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철학적, 사상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둘째, 유기체적 자연관 형성을 위해 전통마을에서 보여지는 자연친화적 특성 중 마을길과 공공마당 등 공공공간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각종 이론 및 국내외 연구와 관련문헌을 검토하여 재정립함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을 도모하였다.

셋째, 사례연구의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의 개괄적인 전통마을을 파악하고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1:5000 지형도를 통하여 입지적 특성별로 구분을 하였다. 더불어 해당 행정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마을들의 인문, 자연환경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 중 전통성의 유지가 비교적 잘되었다고 판단되는 4개의 마을을 예비조사하였다.

넷째, 예비조사의 결과 선정된 마을의 입지적 특성을 파악하고, 실측보고서를 통하여 도면을 확보하였다. 이어서 물리적 특성 및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마을길의 길이와 높이, 폭을 실측조사하고 공공마당의 위치와 규모를 도면과 대조하여 대상지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더불어 인터뷰 및 관측조사를 통하여 마을의 인문, 자연환경적인 요인을 조사하였다.

다섯째, 지형도와 실측보고서 및 실측조사에 의하여 도면을 재정리하고 컴퓨터 CG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마을주변의 지형과 마을안 지형의 고도, 향, 경사분석을 실시하여 개괄적인 마을의 입지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마을길을 가시적 범위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대한 물리적 및 자연친화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여섯째, 연구의 분석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마을길과 공공마당의 기능과 구성을 분류하여 대상마을간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고, 마을길과 공공마당의 물리적 조건 및 자연친화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일곱째, 종합고찰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대 주거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3. 선행 연구 고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전통마을에 대한 연구는 단위 주거에 집중하여 분석되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건물이 보여주고 있는 자연친화적 특성 혹은 지역성에만 국한될 뿐이지 그러한 특성이 거주자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전통마을에 관한 연구는 사회·역사적인 측면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며, 공간구조적 측면에서도 자연환경과 풍수지리적 요소를 통한 마을의 연구와 가옥구조 및 건축양식에 관한 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각 대상 마을의 기존 연구를 파악하여보면 가옥의 구조에 관한 연구, 마을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마을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의 3가지 범주 속에서 수행되었으며, 그 사례는 표 1과 같다.

또한, 전통마을간의 특성을 비교 고찰하여 진행한 연구 역시 마을공간구조의 해석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전통마을에서 마당에 관한 연구는 주택마당의 연구에만 치중하고 있어, 공공마당의 장소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마을 주민간의

공동체의식 형성의 장(場)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마당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길에 관한 연구는 연구대상을 현대 도심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통마을에서의 길과 공공마당에 관한 연구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행된 본 연구의 진행 방향은 그림 2와 같다.

표 1. 기존 연구 동향

구분	하회마을	외암리마을	양동마을	성읍마을
가옥의 구조에 관한 연구	김경희 (2000) 한조동 (1995) 김동인 (1982)	이인섭 (1993) 김홍수 (1986)	조우용 (2001) 노동성 (2000) 한 승 (1999) 정석원 (1999) 이창업 (1999) 박 현 (1998) 김복태 (1997)	김경완 (2003)
마을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조난영 (1994) 민학기 (1991) 서상윤 (1988) 박재하 (1988) 김성균 (1988) 김덕현 (1983)	송복섭 (1997) 허 근 (1994) 김남미 (1992) 심혜자 (1990) 전미경 (1990)	강태송 (2001) 강동진 (1997) 이규성 (1995) 문병용 (1989) 이종훈 (1988) 최진영 (1987) 김근고 (1987) 이동연 (1980)	김용기 (1998) 이성재 (1998) 김영철 (2000)
마을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문은배 (2001) 김재영 (2000) 서성윤 (1988)	남승희 (1999) 허정호 (1986)		
길에 관한 연구	이경찬 (1987), 유정희 (1990), 고일석 (1992), 김호경 (1992), 양준석 (1994), 윤보숙 (1995), 정한용 (1995), 윤여신 (1998)			
마당에 관한 연구	김영민 (1984), 박홍배 (1986), 성재중 (1998), 신상섭 (1991), 이국흠 (1986), 이인섭 (1993), 지영주 (1991), 최동호 (1995)			
전통마을 간의 특성 비교 연구	최병돈 (2000), 장영우 (2000), 이한중 (1988), 김운영 (1996), 이재환 (1990), 이상준 (1984), 이재근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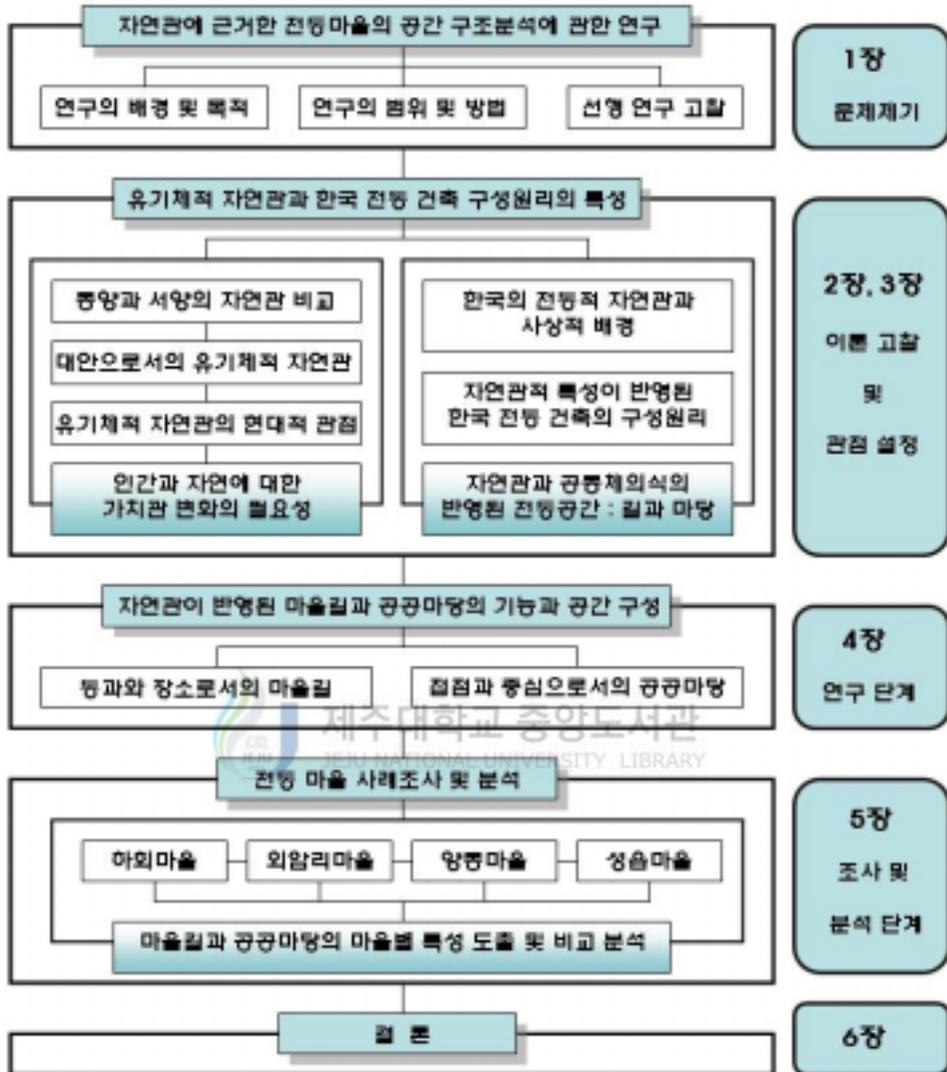


그림 2. 연구흐름도

Ⅱ. 새로운 세계관으로서의 유기체적 자연관

기계문명과 인본주의 사상이 지배해 온 20세기 인류문명은 과도한 인공환경의 확대를 가져왔고 인간과 환경의 유기체적 삶의 연결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늘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공화 된 도시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동시에 자연으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심리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 또한 동양적 세계관이 수용된 유기체적 세계관이 발달하면서 인간 대 자연의 대립이라는 서양의 이원론적 사고는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유기체적 자연관으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최근 건축 분야에서 자연에 동화된(synchronized with the nature) 환경에 대한 접근 즉 자연친화적 건축에 대한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다. 자연친화적 건축은 물리적,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인간이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생리, 심리적이 측면에서도 인간과 환경이 함께 호흡하는 것을 돕는 차원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본 장은 이러한 자연과 함께하는 유기체적 자연관을 형성하는 것이 유기체적 자연관의 궁극적 목표임을 밝히고 이러한 자연관이 어떠한 사상적 흐름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나타내고자 한다.

1. 서양의 전통적 자연관

1) 고대 그리스 시대의 자연관

초기의 그리스 사상에서 인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물질의 세계인 자연이었다. 즉, 기원전 6세기경의 이오니아 자연학¹²⁾에서 말하는 자연이란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자연뿐 아니라 영혼과 생명이 포함된 일원론적 자연이었다. 그들은 생물과 무생물, 정신과 물질을 동일시했으므로 우주는 일종의 유기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사상가들의 관심이 자연에서부터 점차 인간이나

12) 이오니아 자연학이란 밀레토스의 세 학자, 탈레스(Thales)와 그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Anaximandros), 아낙시메네스(Anaximenes)로 시작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초기 흐름을 말한다.

사회의 문제로 옮겨 감으로써 철학은 자연학에서 인간학으로 전환되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물질의 세계와 구별되는 이데아(Idea)계라는 세계가 있고 이것이 진실하고 불변한 실재의 세계이다. 우주와 물질의 세계는 생성, 변화하는 감각적 세계이고 이성의 대상인 이데아 세계의 모상으로서 2차적인 존재에 불과한 세계라고 생각하였다.¹³⁾

이렇게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사고체계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체계화되어 이후 2000년 동안 서구 우주관의 기초가 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자연의 모든 존재는 그 자신 안에 목적을 포함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 자연 전체는 어떤 종류의 조화적 질서(cosmos)를 이루고 있는데 그 질서는 목적의 우열에 따른 계층적 질서이다. 즉 각 부분이 갖는 목적은 계층적 질서에 의해 전체의 목적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부분과 전체의 유기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논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자연관을 유기체적 자연관이라고 하기보다 목적론적 자연관이라고 한다. 그의 자연관은 또한 이성적 영혼을 가진 인간을 자연계의 다른 사물들로부터 구분하였고 이것들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였다.¹⁴⁾

2) 기독교의 자연관



중세 기독교 시대로 들어오면서 우주론과 자연관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적이었다. 따라서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도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해석되었다. 화이트는 ‘현대의 생태적 위기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논문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는 성경구절에 의거해서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인간에 의한 자연 착취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주장하였다.¹⁵⁾

최근 들어 전통적인 기독교 환경관과 구분된 성경적 환경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자연 파괴의 책임은 기독교 자체가 아니라 창세기의 내용을 인간 중심으로 잘못 해석한 전통적 기독교 환경관에 있다고 주장한다.¹⁶⁾ 태초에 에덴

13)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95, pp.330-331

14) 송영배 외, 인간과 자연, 철학과 현실사, 1987, pp.151-152

15) L. White,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967

동산에서는 창조주, 인간, 자연 및 모든 피조물들이 아무런 갈등이나 소외가 없는 조화로운 생명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주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존재의 중심에 놓으려 했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또 자기 생명의 직접 출처지인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어 땅은 엉성귀와 잡초를 내고 황폐화되었다.

성경적 환경관은 이런 소외의 회복 가능성을 인간의 한계에 대한 자각에서 찾는다. 인간과 자연의 불가분리적 관계성에 대한 자각, 그리고 유기체적 물질체가 생명이 되도록 만든 출처와 귀착지가 창조주라는 자각이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인간은 자연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은 소유자인 창조주의 법도 안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인간의 복리와 유익이 주체가 아니라 창조주의 관점¹⁷⁾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한다.¹⁸⁾

3) 근대 물리학의 정립과 기계론적 세계관

17세기에 갈릴레이와 케플러의 수학적 물리학이 형성되면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념인 기계적 철학이 확립되었다. 이 기계론은 입자론을 포함하는데 이는 세계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입자들의 운동과 배열로 구성되어 있다는 관념을 말한다. 자연을 기계로 본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물질적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

1687년 뉴턴의 프린시피아(Principia)가 출판되었다. 이는 사물을 보는 관점을 크게 변화시켰는데, 모든 물리적 사건들은 공간에서 상호 인력에 의해 야기되는 물리적 점들의 운동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후의 물리학은 사물의 본성에 대한 관념적인 설명 대신에 객관적인 현상을 관찰하고 현상이 지닌 경험적인 연관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세계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생각은 데카르트(1596~1650)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나와 세계, 물질과 정신을 구별하는 심신이원론에 근거를 둔다.

16) 송영배 외, 인간과 자연, 철학과 현실사, 1987, p.118

17) 창세기 1장 3절 :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18) 손기철 외, 원예치료, 도서출판 서원, 1997, pp.29-30

19) 송영배 외, 위의 책, p.153

이러한 이원론적 분할은 물질세계를 인간과 분리된 것으로써 부분적인 객체들이 모여서 조립된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게 하였으며 그 결과 세계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술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데카르트는 객관적인 기술(수학적 공식)이 유일한 지적 방법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수학적 물리학만이 자연을 아는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하였다. 이후 150년간 이 사상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모든 학문은 이성과 수학을 토대로 하여 재건되었다.

2. 동양의 전통적 자연관

1) 노장사상(老莊思想)의 자연관

노장사상은 무위자연의 자연순응사상이다. 노자(중국 전국시대 초)는 인간이 무위의 태도로 만물을 대하게 되면 자연에 순응하여 만물의 스스로 그러함(自然)을 돕고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에도 자연의 법칙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노장사상에서 말하는 자연에 따르면 인간의 사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사물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물오리의 다리는 짧고 학의 다리는 길다. 그러나 사물을 그 자체로 보면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 특성은 최적의 조건임을 알 수 있다.²⁰⁾

노장사상은 도(道)의 존재와 역할을 강조한다. 도(道)는 무형의 존재이면서도 없는 데가 없고 불멸하는 존재이다. 그것은 천지만물의 생산자이지만 다른 것에서 창출되지는 않는다. 즉 자연생명들이 자기 자신의 원인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결과이기에 이 자연 생명은 자연목적으로 존재한다.²¹⁾ 도가 이러한 역량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안에 무한과 자유가 있기 때문이므로 인간이 도를 체득하게 되면 이의 무한과 자유를 얻게 된다. 도는 무위할 뿐 아니라 자연하다.

장자(B.C. 4C 경, 중국 전국시대 송)에 천지는 나와 함께 살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하나라는 구절이 있다. 이처럼 노장사상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이라고 한다.

20)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모색, 1996, pp.87-88

21) 한국미술예술헌학회 편, 예술과 자연, 미술문화, 1997, p.222

2) 유교사상의 자연관

유교는 크게 선진유교(先秦儒敎), 한당유교(漢唐儒敎), 성리학(性理學), 실학(實學)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자연관에 대한 견해를 비교적 분명히 드러내는 성리학, 그 가운데서도 주자학(朱子學)의 자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주자학의 자연관에서 천지는 형이상자(形而上者)와 형이하자(形而下者)로 구분된다. 천(天)은 형이상자이고 자연계와 인간계는 형이하자이다. 천은 천지를 주재하는 리법천(理法天)인 리태극(理太極)을 가리킨다. 따라서 천즉리(天卽理)가 된다. 천은 리만이 존재하는 세계에 존재하므로 현상 세계를 초월하여 있다. 이에 비해 자연계와 인간계는 이기가 공존하는 현상 세계에 속한다. 천리(天理, 리태극)는 현상세계를 초월한 형이상적인 본체계에 속하면서도 현상 세계의 모든 존재에 두루 품부되어 있다. 이것을 ‘성즉리(性卽理)’라고 하는데 인간과 현상세계의 모든 존재가 보편적으로 지니는 본연지성(本然之性)을 가리킨다. 따라서 주자학에서는 천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구분되면서도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관은 그 의미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천리(天理, 리태극)는 생명원리로서 자연계와 인간계를 일관하고 있으므로 이 두 계는 천리를 매개로 하여 유사성을 지니며 따라서 이들 천, 자연, 인간은 유기체적 생명체를 이룬다.

둘째, 주자는 자연을 궁극적인 존재자인 천으로 보지 않는다. 자연은 유형의 존재이며 생명체임에 틀림없지만 생명체의 원형은 아니다. 생명체의 원형을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무형의 리법천(理法天)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생명체가 지닌 유형의 육체적 요소를 간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물질문명의 문제에 등한하였다.²²⁾

3) 불교사상의 자연관

불교에서 말하는 자연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출가 수도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마음으로서의 자연이다. 이런 마음은 일체의 존재를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에는 환경으로서의 자연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환경으로서의 자연으로, 소유하고 향유하는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인간은

22) 송영배 외, 위의 책, pp.157-160

이 자연을 필요 이상의 소유와 편리의 추구 대상으로 삼아왔다. 따라서 불교의 계율은 의식주에 있어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여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초래하는 자연 착취의 행위를 제한한다. 이는 자연이 인간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 공유의 대상이 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셋째, 출가수도와 해탈능력으로서의 자연이다. 첫째 자연의 힘이 극복되는 정도만큼 셋째 자연의 힘이 발휘되며 그런 후에야 비로소 둘째 자연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혜연선사 발원문에 “유정들도 무정들도 다 일체 존귀할 지이다”가 있다. 여기서 유정은 생명을 가진 존재를 말하고 무정이란 돌이나 흙과 같은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유정들도 무정들도 다 성불한다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성불하는 것은 생명체라고 알고 있지만 불교는 유정만을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며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생물이 나의 존재의 토대라고 생각한 것이 불교의 생명관이었다.²³⁾

표 2. 동양과 서양의 전통적 자연관 비교

서양		동양			
사고체계	자연관	자연관의 특징	사고체계	자연관	자연관의 특징
논리, 이성적, 합리적, 의식적	고대 그리스 철학의 자연관	-이원론적 자연관 : 자연과 인간을 구분 -자연에 도전, 변형, 이용 -물질적 가치 중시	직관, 감성적, 잠재적, 관조적	노장사상의 자연관	-일원론적 자연관 : 자연과 인간을 유기체적 일체로 파악 -자연에 순응, 조화 -정신적 가치 중시
	중세의 자연관			유교사상의 자연관	
	기계론적 자연관			불교사상의 자연관	

3. 현대의 유기체적 자연관

근대 서양의 자연관과 과학관은 20세기 동안 환경에 대한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23)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모색, 1996, pp.128-150

을 형성하는 기반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성이 현대 과학과 과학철학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환원주의²⁴⁾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과학은 전체가 부분들의 합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자연계가 기하학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수학의 세계가 아니라 무수한 변수가 개입된 상태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유기적 세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카오스 이론²⁵⁾의 등장을 통해서 자연계의 구조를 비선형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현대 물리학은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원자핵과 그 주위를 회전하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는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입자성²⁶⁾과 파동성²⁷⁾은 상반된 개념으로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상대성을 이루는 동일한 본체의 양면성이다. 또한 아인슈타인(1879~1955)의 상대성 원리²⁸⁾는 데카르트의 기계주의적 우주관으로부터 탈피하여, 우주를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동양적 우주관에 접근하였다. 그리고 양자세계에 있어 물질은 반물질이라는 쌍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서로 만나면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이로써 물질의 최소단위인 소립자의 세계에서 확고하게 존재하는 것은 결국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되게 되었다. 이것은 자연법칙에 있어 뉴턴 물리학 시절까지 통용되던 고전적 인과물이 하이젠베르크²⁹⁾의 불확정성의 원리³⁰⁾로 대체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 24) 근대과학에서 자연계를 연구함에 있어 복합적인 것을 단순한 부분으로 환원하고, 이성을 통하여 재구성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 25)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놀라운 규칙성을 가진 현상. 카오스 이론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로 간단한 법칙 속에서도 복잡한 혼돈스러운 현상이 생기고, 반면 혼돈 현상 속에도 어떠한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6) 다른 입자와 충돌하여 그 입자를 튕겨 나가게 할 수 있을 때 입자성이 있다고 말한다. 빛은 전자와 같은 입자와 충돌하여 이를 튕겨내므로 입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27) 파동은 일반적으로 중첩원리에 따라 간섭과 회절을 한다. 간섭과 회절을 일으키는 무엇이든 파동으로 볼 수 있다. 전자회절 실험에서 전자가 원자격자에 의하여 회절, 간섭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써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8) 주로 물체의 운동을 다루었던 기존의 물리학을 그 물체가 담고 있는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다루도록 방향을 바꾼 이론. 상대성의 개념이란 예컨대 A와 B는 서로 상대적인 운동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A의 시간과 B의 시간은 서로 다르게 간다는 개념을 말하는데 상대성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만들어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설명한다.
 - 29) 고전 역학과는 다른 새로운 현대 물리학 체계인 양자역학을 창안한 독일 물리학자.
 - 30) 하이젠베르크가 자신이 창안한 양자역학에 대한 철학적 해석으로 발표한 물리학 원리. 객관주의와 실재론적 전통이 강한 물리학에서 주관주의와 관념론적인 측면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 아무리 정확한 물리 법칙이라 하더라도 어떤 한계 내에서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뉴턴에 의해 완성된 고전 물리학의 결정론적 세계관에 대립되는 비결정론적 주장이었다.

이와 같은 현대과학과 물리학의 연구 성과들이 동양적 우주관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발달한 21세기의 새로운 자연관은 동서 철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면서 유기체적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세계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다



그림 3. 유기체적 세계관으로의 전환

음과 같은 점에서 유기체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첫째, 환원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등장한 비분할주의, 비환원주의이다. 우주는 이제 수많은 사건과 사물들로 이루어진 역동적 유기체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둘째, 다원주의(多元主義)이다. 하나의 가치관이 모든 영역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획일주의는 지양되고 있다. 셋째, 개방성이다. 일체 존재자들의 바탕이 되는 세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물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는 개방성의 인정은 우주와 모든 개체를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넷째, 신이성주의, 신합리주의이다. 지난 세기에 이성은 주로 주지주의적 경향으로 인식되어 지성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관에서의 이성은 정량화된 주지주의에서 벗어나 문학, 예술, 종교 등 인간의 모든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이성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4. 유기체적 자연관의 현대적 관점

위에서 논의한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현대에 발전하고 있는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관점을 환경보호적 관점, 인간의 생리·심리적 어메니티 관점, 자연과의 친화적 교감과 행동 수정의 관점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³¹⁾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환경보호적 관점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는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인류의 복지추구를 목적으로 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 윤택함을 높이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인구의 폭발적 증가, 도시화 등 지나친 인공환경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자원고갈과 환경파괴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결국은 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서양의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취된 이러한 과학의 성과는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인 환경을 인간의 존재에 필요한 물리적 ‘외부’ 세계의 개념으로 규정하였기에 환경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행동이 이의 존재와 순환에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받는다는 관념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유기체적 세계관의 발달은 이런 서양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인간은 이제 환경이 인간과 분리된 물리적 이용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유기적 공생관계를 갖는 생명체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 유기적 공생체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환경파괴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물들을 산출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육체와 삶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반대급부 현상들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생태계, 즉 환경의 일부이지만 환경문제를 일으킨 원인제공자인 동시에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발달한 것이 환경보호적 관점의 생태학적 패러다임이다. 이 관점은 다른 관점들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1980년대 후반에 발달하였다. 모든 생명체의 활동무대가 되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환경친화에 있어 행동적, 기능적인 면이 강조된 개념이다. 즉, 자연환경과 인

31) 이정민, 홍의택, 임중훈, 공간디자인에 있어 에코디자인적 접근의 유형과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4권 1호, 통권 48호, 2005, pp.49-52

간의 유기적 공생관계를 인식하여 생태계의 조화로운 순환과 작용을 방해하는 유해 부산물들의 생산이나 환경자원의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자는 의도가 바탕이 되어 나온 개념이다. 이런 생태학적 관점의 목표는 5R로 표시되는데 Reduce(오염물질의 감축), Reuse(생활재의 재사용), Recycle(자원의 재활용), Regeneration(자원의 재생), Refill(자원의 재충전)을 일컫는다.³²⁾ 즉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품과 환경물을 사용하는 것이라 정의된다.³³⁾

2) 인간의 생리·어메니티 관점

산업혁명 이래 과학과 물질문명이 발달하였고 산업화, 도시화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자 인간은 이제 삶의 질이 보다 높아진 생활양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생리적, 심리적인 건강과 안정감에 대한 소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과는 반대로 도시화된 환경은 심리적 복잡함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노이로제, 우울증, 편집증 등의 심리, 정서 장애는 흔한 사회적 질병이 되어 가고 있다. 21세기 디지털 혁명 시대의 도래는 인간에게 또 다른 정신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또한 도시인들의 하루 생활은 대부분 회색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눈은 초록의 녹지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필요로 하지만 도시인의 생활주변에서 자연적인 시각자극을 찾기란 쉽지 않다.

반면에 식물로 구성된 환경은 인간의 정신적 능률과 생리적 쾌적성, 안정성을 회복시키고 환각성이나 자극을 감소시킴으로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이처럼 인간의 생활, 작업 환경을 그린(Green Material)을 이용하여 자연적인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생리적 효과를 갖는다. 이를 돕는 태도도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인간의 웰빙(well-being) 관점에서 현대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식물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심리적, 생리적 효과는 과학적인 실험이나 조사 결과들에 의해서도 다양하게 증명되고 있다. 실험 결과, 식물이 있는 환경은 전형적인 도시의 회색 경관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2) 송인호, 이종성, 환경친화적 디자인을 위한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학 연구, 통권 43, 2001, pp.36-37

33) 김성혜, 제품 환경에 있어서의 그린디자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25

작업 능률의 증진이나 스트레스, 질병으로부터의 회복도 자연환경에 노출되었을 때가 더 빠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림 4. 그린 어메니티를 적용한 자연친화적 관점의 심리, 생리적 기능

3) 자연과의 친화적 교감과 행동 수정의 관점

심리학의 연구 성과들은 인간과 그가 생활하는 환경은 분리된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입증해 가고 있다. 한 예로 행동 유전학자들은 행동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이들에 의하면 유전자에 들어 있는 정보는 그대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행동 유전학자들은 유전형(genotype)과 표현형(phenotype)을 구분하는데 유전형은 개체에 내재되어 있는 유전자 형질의 집합이고 표현형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실제 나타나는 해부학적, 생리적, 심리학적 특성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유전형은 곧은 머리의 유전자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상태, 식사습관, 몸치장 습관 등에 의해 곱슬머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신체적 특질뿐만 아니라 행동, 성격, 지능 등 여러 심미적 특질도 결정된다.³⁴⁾

또 다른 예는 행동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내적 사고방식이 외적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외적 행동이 내적 사고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을 입증하였다. 행동심리학에서는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심적 상태가 아니라 환경적 결정인임을 강조한다. 이들은 인간의 외현적인 문제 행동에 초점을 두며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행동을 수정코자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상, 철학 같은 내적 사고의 차이가 외적인 문화, 인공환경의 차이를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동유전학과 행동심리학은 반대 방향의 영향, 즉 외적인 문화, 인공환경에 의해 인간의 내적 사고체계 형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또한 밝히고 있다. 한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과 그 환경에 의해 유도되는 행동은 위의 연구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의 내적 사고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사고체계의 변화는 다시 인간의 행동변화로 이어지고 문화 및 인공환경의 새로운 건설로 환원되는 유기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린 어메니티(green amenity)로 형성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련된 심리이론에 고전적 조건형성이 있다. 이는 인간이 환경을 통해 주어지는 경험에 의해 학습하게 되는 태도형성에 대한 것이다. 고전적 조건형성에 따르면 특정 환경 자극들(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자극들)과 연합되어지는 중성적인 자극은 어느 것이나 그 환경자극들이 유발시키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

고전적 조건형성은 파블로프(Pavlov, 1849~1936)가 개의 타액분비 실험을 통해 정립하였다. 환경과 관련된 고전적 조건형성의 예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이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거의 모든 행동들은 고전적 조건형성으로 학습한 것이다. 도축장 옆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이 학교와 교육에 대해 학습하게 되는 태도를 예로 들어보자. 불쾌한 냄새가 처음에는 학교 건물과 연합되고 그 다음에 교사들 및 교과과정에 연합되며 그 다음에는 교육 그 자체와 연합될 수 있다.³⁴⁾

이처럼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 조건형성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형성에

34)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 심리학의 이해, 학문사, 1997, p.59

35) 한국심리학회 편, 앞의 책, p.84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심리적 관점에서 건축 공간 계획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간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좋은 공간 계획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활동들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인간에게 꼭 필요하지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기 쉬운 대상이나 활동이 있는 환경(예를 들어 상담실, 학교, 병원 등)에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환경자극을 이용하여 공간연출을 함으로써 그 대상이나 활동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식물은 인간에게 긍정적인 무조건 자극으로 작용함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예를 들어 심리적 안정, 생리적 피로감 감소 등)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인간은 고전적 조건형성에 의해 식물이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문화와 환경은 인간의 태도와 행동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면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비자연적인 환경에서 형성된 인간의 행동과 사고는 환경친화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생활환경을 자연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가치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 강조점이 주어져 있는 자연보호적인 관점이나 인간의 생리, 심리적 어메니티를 위한 관점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친화적 교감과 행동수정을 위한 관점이 병행하여 발전하여야 한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느냐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환경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기 때문이다.

도시환경은 점점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모해 왔다. 그러므로 도시인의 사고체계 형성에 자연환경에 의한 영향보다는 인공환경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린(Green Material)을 적용한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중요성은 균형을 잃은 자연환경의 영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즉 기계적이고 인공성이 강한 도시인의 생활환경을 자연을 인식시키는 생태적 환경으로 구성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자연의 영향력을 회복시키며 이러한 회복은 다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왜곡된 행동과 영향력을 수정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분석한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관점들 중에서 환경보호적 관점과 인간의 생리·심리적 어메니티 관점은 서양의 합리적, 물질적 사고에 가까운 환경친화의 접근방식이다. 비록 유기체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이 두

관점의 내용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방법론과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기능적인 측면의 향상(환경에 대한 생태적, 생리적, 심리적 기능성의 향상)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원론적 사고로 파악하고 있어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도 인간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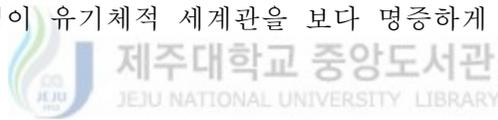
반면 자연과의 친화적 교감과 행동수정의 관점은 동양의 정신적, 관조적 사고가 강조된 접근방식이다. 이런 관점의 생태학적 태도를 살펴보면 자연이나 인간에게 직접적인 기능성의 향상을 이루지는 않지만, 또한 때로 자연보호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인간 삶의 정신적인 방향성과 장기적인 태도 변화에 관여하고 있다. 인간과 그의 환경은 결국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같은 유기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에 불과하다는 동양적 관점이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대의 유기체적 세계관의 발달은 결국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유기적 친화관계를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Ⅲ. 한국 전통 건축에 반영된 자연관

앞서 유기체적 자연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인간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환경보호적 관점보다는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유기체로 여기는 자연과의 친화적 교감과 행동 수정의 관점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 전통 건축에 나타난 자연친화적 특성은 어떠한 자연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장에서 고찰한 유기체적 세계관이 반영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전통 건축에 반영된 전통적 자연관과 풍수지리 등의 사상적 배경을 고찰하였고, 전통 건축의 공간 중에서 유기체적 세계관과 자연친화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요소들을 외부공간, 단지내 생태공간, 주호부분 등의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 통풍을 고려한 건물의 배치, 자연 재료 사용 등의 단위 주거 계획과 관계된 요소보다는 마을의 공공공간인 마을길과 공공마당의 물리적 및 생태적 특성이 유기체적 세계관을 보다 명증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

한국 전통 건축 공간을 형성한 한국인의 정신세계의 저변에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풍토, 즉 자연 환경적 배경과 종교, 기철학 등에 기인한 사상적 배경이 있었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사상적 배경이 한반도에 수 천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인의 행동 생활규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한국 전통 사회를 형성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은 중국의 전통사상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우리의 토속신앙과 불교사상으로부터 결합되어 나타난다. 또한 예부터 선조들은 건축을 할 때 천(天), 지(地), 인(人) 합일사상에 그 뜻을 두었다. 천이란 하늘을 뜻하니 곧 지붕이며, 지는 땅을 뜻하니 건물이 앉혀지는 대지와 기단부

표 3. 동양과 서양의 자연환경 비교

분류	우리나라	서구
산의 형태	 <p data-bbox="294 537 728 629">비교적 낮은 형태로 둥근 구릉지형태를 띄고 있다. 산을 바라보고 관조하면서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p>	 <p data-bbox="755 537 1189 629">산의 정상이 분명히 드러나는 뾰족한 형태이며, 지각성향으로 인해 산을 오르며 정복하고자 한다.</p>
건물 형태	 <p data-bbox="294 890 709 948">건물이 산의 아래에 위치하여 산과 조화를 이루는 둥근 형태를 취하였다.</p>	 <p data-bbox="755 890 1184 948">산정상에 건물을 지었으며, 자연환경과 비슷한 박공형태의 지붕이 되었다.</p>
지형 형태	 <p data-bbox="294 1211 677 1302">전국의 70%가 산인 우리의 지형은 산과 산의 능선이 연결되어 자유곡선으로 인식된다.</p>	 <p data-bbox="755 1228 1167 1286">지평선이 넓게 펼쳐져 있는 평야에서 산이 몹시 두르려진다.</p>
마을 형태	 <p data-bbox="294 1557 732 1647">산들이 마치 울타리의 기능을 하며 그 안에서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가졌다. 땅의 기를 받아 삶을 향상하고자 하였다.</p>	 <p data-bbox="755 1557 1144 1647">산·평야를 중심으로 마을이 성립. 원심력·구심력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심리적 긴장감을 가졌다.</p>

를 뜻하며, 인이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인 건물 몸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사상은 전통 건축을 할 때 빠져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다.³⁶⁾

우리 고대의 조상들은 천공적 원형(天空的 原形)을 모방하여 사물에 대한 실재성(reality)을 추구하였다. 삼재(三才)라 불리우는 천·지·인이 우주의 근본원리라고 생각했으며 이의 상징적 형태를 원(圓)·방(方)·각(角)의 기본적인 3가지 기하학적 형태로 존재의 본질(本質)을 형태적으로 표현하였다. 유(濡)·불(佛)·선(仙)이 전래된 이후에도 이런 원리는 끊임없이 전통건축의 밑바탕에 깔려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주만물을 수·목·금·토의 다섯 가지로 분별하여 그 다섯 요소의 순행과 역행의 과정을 통하여 세계만물이 상생하고 상극하는 유기적이며 구성적인 관계에 대한 개념인 오행사상(五行思想)은, 음양사상(陰陽思想)³⁷⁾과 종합하여 우주의 모든 현상을 주관하는 원초적이며 통일된 근본사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³⁸⁾

또한 이러한 음양사상과 더불어 물과 빛과 바람에 의해 달라지는 땅의 모습을 가늠하는 풍수지리사상도 터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 기인하여 한국전통건축은 주변환경 조건을 반영하면서, 발전한 건축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한국의 지역적 특성과 자연환경에 적합하도록 시행착오와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다. 결국 한국 전통공간의 형성 자체가 친환경적 측면에서 고려되고 발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담의 내부쪽에 있는 건축공간의 외부공간의 자연 그대로의 조경은 한국전통주거공간의 인공과 자연의 일체성, 서로 대립되는 요소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일체성을 이룸으로써 한국인의 자연존중사상과 건축물의 자연합일 표현을 모두 담고 있다.

2. 한국의 자연관의 사상적 배경

1) 풍수지리사상

36) 박상근, 알기 쉬운 생거지 풍수 기행 여행, 기문당, 1998,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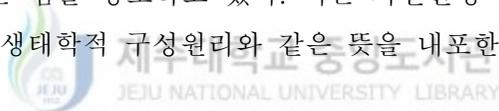
37) '음양사상'의 본질은 대립과 화합의 논리가 공존하며 대립관계는 '+'와 '-'에서와 같은 상반관계이고, 화합은 양성인 해 속에 음성인 까마귀가 살고 있는 예와 같이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서 발전, 상승, 확산 등의 무한한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민경현, 한국 고대문화의 뿌리와 변천과정, 애경출판사, 1998, p.42

38) 유승국, 태극기의 원리와 민족의 이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1-12

‘환경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이는 인간생활의 여러 내용은 환경으로부터 지배나 영향을 받거나 혹은 상호교접하는 면이 있음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동시에 환경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심상으로도 작용하여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지향되던 가치 체계와도 결부되어 어떤 믿음으로나 사회 습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⁹⁾

풍수지리⁴⁰⁾는 우주론적 체계로 발전하여 구체적인 우주 상징의 질서체계로 확립되었다. 토지 속에 만물을 생성하는 생명력 즉, 기가 내재해 있어 인간 삶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땅에 묻힌 골기(骨氣)에 생기(生氣)가 감응하면 지상의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들은 조선시대에 들어 그 시대를 지배한 유교사상과 합쳐지며 주거건축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부여받은 본연의 성품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물음과 ‘성품을 지키는 바른 길은 무엇인가’라는 실천적 수단을 중시한 유교의 대표적인 덕목이라고 할 조상숭배, 남녀유별, 장유유서 등은 주거공간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⁴¹⁾

이와 같이 대지가 갖는 수용력 또는 조직력의 범위에서만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체가 자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연환경적 수용 범주내에서 적합한 이루어야 한다는 생태학적 구성원리와 같은 뜻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2) 음양사상

하늘과 땅, 남과 여, 해와 달, 명(明)과 암(暗)에서와 같은 상대적 대비와 조화의 관념에 근거하여 생기는 사상으로 즉 동일 물체에서 음양⁴²⁾의 공존을 나타내는 것이다. 음양사상의 본질에는 대립과 화합의 논리가 공존하며 대립관계는 상반관계이고, 화합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써 발전, 상승, 확산 등의 무한한 가능성을 암시한

39) 이상해, 한국전통문화에서의 풍수적 환경인식, 공간 1988년 9월호, p.39

40) ‘풍수’란 산수가 신비로운 생기를 내재하여 인간생활의 배후에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한다고 믿고, 거기에 인간과 죽음이의 영혼을 일치, 조화시킴으로써 인간생활에 복리를 추구하려고 한 하나의 속신으로 풍수 혹은 지리가 원칭이며, 감여(堪輿), 지술(地術), 음양(陰陽)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발언출판사, 1993, p.148

41) 이원교, 사대부가의 공간도식적 특성, 건축과 환경, 1986년 8월호, p.43

42) 중국철학에서 ‘음양’은 상호 대립적이며 상보적인 것으로서, 음은 수동적, 소극적, 여성적인 우주의 힘 또는 원리이며 양은 능동적, 적극적, 남성적인 힘 또는 원리로 빛과 열의 원천이다. 음양의 개념은 인간의 생활 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 세계와 세계 전체에 걸쳐 이 세상의 모든 효과들의 양극성(兩極性)을 나타내준다. 이강훈, 건축적 사고로서의 음양개념의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17호, 1988, p.42

다. 원래 음과 양은 서로 대립되는 요소이지만, 서로간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 원리에 의해서 활기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상호작용은 통일된 이중성(二中性), 지고(至

표 4. 풍수지리사상과 환경생태학의 비교

		풍수지리사상	환경생태학
자연관 개발관	유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인간-건축을 통합적으로 파악, 타당성 검토 • 건축 후 자연환경문제에 근거한 개발 	
	상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氣), 생명력을 가진 자연 →개발에 대한 소극성 • 자연요소의 맥, 연계성 →자연요소의 상대적 해석 • 경관의 상징성, 정서성 →상징적 체계의 손상 방지 • 자연에 대한 인간의 주체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에너지)으로서의 자연 →개발에 대한 적극성/자원절약 • 자연요소의 순환, 상호의존성 →자연요소에 대한 기능적 해석 • 경관의 생리적, 심리적 효율성 →쾌적성(amenity) 확보 •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자연
건축계획 지침	유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강도 결정 근거로서의 자연조건 • 경사지 건축행위 제한 / 광역 자연조건 분석 • 거주자의 건강성 	
	상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범위 결정요인으로서의 자연의 조직력→좌향 • 개념적용의 일관성 • 건축의 환경심리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현상의 순환구조 고려→향 •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체적 계획 지침 제시 • 주민 참여
형태에 관한 관점	유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요소들과 통합, 조화되는 형태 • 경관적 측면에서의 건축형태 	
	상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판단의 구체적 기준 제시 • 불리한 형태의 보완방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형태의 개념적 규정 →다양성 / 다기능성 / 적합성

출처:한필원, 자연중심의 건축계획방법의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57호, 1993, p.35

高)의 하나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원리는 대자연의 모든 현상을 생성 소멸시키는 근원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서로 나누어 있지도 않고 단순히 서로 더해져서 전체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지만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는 것이다.⁴³⁾

43)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pp.166-167

음양에서 말하는 상호보완을 통한 역동적 전일성은 바로 현대의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작은 단위로 환원될 수 없으며 각 부분 사이의 상호보완과 상호의존을 통해서 유기적 결합관계를 유지하는 통합된 전체로서, 그 형태에 있어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역동적 과정의 패턴인 유기적 시스템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음양사상의 조화와 균형을 향한 일원론적 사고 체계에 대한 이해는 근대적 패러다임에 의해 야기된 환경오염과 생태학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체계로서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실현에 바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연관적 특성이 반영된 한국 전통건축의 구성원리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디자인은 지역적 조건과 사람들 모두에 반응하므로 한 장소에 관하여 고유의 특성을 찾아내고 그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 지역에 과한 특징과 지식은 기후, 지형, 토양, 수계, 식생, 동식물, 인간의 활동 등 그 지역에서 서식하고 발생하는 모든 일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은 장소 그 자체로부터 유기적으로 자라나는 것으로 장소를 맥박치게 하고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 언덕과 계곡, 강과 시냇물 그리고 산림 등 지형의 형태는 그 지역의 미기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 전통 건축에 있어서 건축과 주변의 자연환경이 너무나 유기적으로 잘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분리된 건축을 생각할 수 없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는 으레 여기에 조화되는 건축을 연상하리만큼 건축과 자연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사람들의 생활행태와 연계를 이루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해야한다는 사실을 자각한 조상들은 자연의 지배가 아닌 자연과의 순응을 택해 조화를 꾀하였다.

1) 전통 공간 구성의 특징

우리의 전통적 외부공간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되어져 왔는데,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형성과 비정형성

공간의 형태에 있어서의 정형적인 공간이 형성되며, 건물과 주변 자연과의 사이에는 비정형적인 공간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전통마을의 공간 구성 특징

형태상 특징	정제성과 비정제성	건물 사이에는 정형적 공간이, 건물과 자연과의 사이에는 비정형적 공간이 존재한다.
구성상 특징	공간의 재분할	마당, 건물, 담을 통한 평면적 분할과 화계, 계단을 통한 수직적 분할
	공간의 연계성, 연속성	
	공간의 위계성	
	과정적 공간과 매체 공간	
경험적 특징	공간의 분절과 연결의 질서 개념으로서의 축	
	공간의 규모가 인간적 척도로 친밀감을 준다.	
	공간의 여백성	가려진 공간이 존재함으로써, 진행에 따라 공간이 전개
	공간의 전망	자연 환경으로, 외부로의 시각적 전망이 확보된다.
장식적 특징	공간의 다목적성	다양한 활동과 이용이 이루어진다.
	공간의 사계절성	사계절의 기후와 다양한 식재로 계절감을 느낀다.
	외부 공간의 조형물들은 모양이나 세부적 장식으로 시각 위주의 장식성이 풍부하며, 특히 강한 상징적 의미 체계를 갖는다.	

최시내, 전통 조경요소를 도입한 도시공원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15

(2) 공간규모의 적절성

공간의 규모에 있어서 인간적 척도의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자연 지형이 낮은 지형이 대부분이고 건축물은 극도의 긴장감이나 극적인 효과를 시도한 예가 거의 없으며,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규모로 분할되어 있다.

(3) 공간의 여백성

공간의 여백성으로 대부분의 외부 공간이 한 눈에 전부 들어오지 않고 수목이나 건물 모서리로 일부분이 가려져서 진행에 따라 공간이 전개되도록 되어 있다.

(4) 공간의 연계성

공간의 삼투성 즉,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긴밀한 관계이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공간 구성 역시 전통적인 공간의 특성이다.⁴⁴⁾

2) 자연환경 조절면에서의 생태학적 특성

전통공간은 위와 같은 외부 환경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자연환경의 조절에 있어서도 생태학적 특성을 갖는다.

전통건축에서 건물의 배치는 자연지세에 순응하는 건물의 위치와 좌향을 갖는데 이는 풍수지리의 원칙에 따라 북쪽에 산을 두고 건축물은 남향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전통건축은 생태학적 질서를 갖게 되어 겨울철 태양을 최대로 수열하고, 북서쪽의 한풍을 차단함으로써, 심리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조절면에서 유리하였다. 또한 지붕의 처마의 경우 계절에 따른 태양고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쾌적한 열환경을 조성한다. 이로써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재료와 공정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크면서 다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사용한 온돌은 복사난방의 일종으로 축조방식이 간단하다. 또한 목재를 주재료로 한 전통건축의 개구부는 여름철에 ‘들어열개’에 의해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의 크기를 거의 동일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실내 기류를 일으키며 인체표면의 수분증발에 의한 냉각효과를 증대시킨다. 겨울철에는 배출구 역할을 하는 개구부를 덧문이나 널문으로 폐쇄하여 후면부의 뒷간과 함께 실내의 차가운 기류의 통과를 차단시킨다.⁴⁵⁾

전통건축은 주위의 경관요소를 거스르지 않는 곳이다 그 곳에서 나오는 재료를 사용하여 지세에 맞는 형태로 되어 있다. 자연과 집 그리고 인간이 서로 일체감을 갖는 하나로 조화시키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주택과 마을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관점에서 생태

44) 임승빈, 도시 경관과 문화재 보호, 환경과 조경 1987년 2월호

45) 이경희, 자연환경조절 측면에서 본 한국 전통주택의 환경특성, 대한건축학회지 통권 130호, 1986, pp.10-15

적인 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기후에 적합한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마루와 온돌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에 적합한 마루와 겨울을 대비해 열효율이 높은 온돌을 이용하고 있다.

둘째로 건축재료의 관점에서 보면 초가집의 경우는 지붕은 벗집으로 이루어져 농업용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벽은 황토흙을 이용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골조는 목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춧돌은 그 지역의 돌을 사용하고 있어 모든 재료를 농촌의 산이나 하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토착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초가집은 건축재료 자체가 벗집, 나무, 흙 등의 자연재료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초가집의 해체시에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자연재료의 특성상 단열효과와 습도조절 효과가 높으며 실내 공기오염 등의 부작용이 없어 건강에도 좋다.

셋째로 에너지 손실 방지 및 보존을 위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남향의 건물배치를 하여 태양열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건물의 배치가 여름철 바람의 이동통로를 막지 않도록 되었을 뿐 아니라 건물의 문과 창을 관통이 되도록 하여 바람이 실내를 관통해 흐르도록 함으로써 실내의 냉방효과를 거두었다.

넷째로 물질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초가지붕은 곤충의 서식이 가능하고 지붕의 수명이 다해 벗집을 폐기할 경우에 퇴비화시킬 수 있어 물질순환이 잘 이루어져 쓰레기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화장실도 채래식 화장실이어서 분뇨를 부엌아궁이에서 나온 재와 섞어 거름으로 만들고 소변은 받아서 거름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과는 다르게 물의 소비가 전혀 없으며 따라서 수질오염을 유발시키지도 않는다. 또한 가정에서 생활용수는 대부분 샘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빗물을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상수공급시설이 필요치 않았으며 마을 포장을 거의 하지 않아 지하수가 보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용수는 수로를 따라 흘러가다가 마을어귀의 미나리밭을 거쳐서 하천으로 유입하도록 되어 있어 그 과정에서 자연정화가 되도록 하였다. 각 가정마다 텃밭을 가꾸어 가정에서 먹을 채소는 손수 재배해 자급하였으며 담장은 토담이나 돌담 등의 자연재료를 사용하였고 탱자나무 등의 생울타리를 조성해 야생동물의 서식여건을 갖추어 주었다.

다섯째로 생태계와 공존하는 자연관이란 관점에서 보면 마을의 입지도 풍수지리를 고려해 배산임수의 자연지형에 순응한 터를 잡았기 때문에 자연훼손을 전혀 하

지 않았다.

위와 같이 항목별로 분석된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자연친화적 특성들을 앞서 2장에서 고찰한 유기체적 자연관과 조합하여 생각해보면, 전통 건축의 모든 요소에 자연과의 친화적 태도가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요소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자연친화적 특성과 자연관을 계승·발전하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 할 수 있으며 전통 건축에서 보이는 다양한 측면을 총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일 것이다.

다만, 자연관이 반영된 건축을 행함에 있어 실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개별 단위주거보다는 전통건축이 포함하고 있는 공공공간에서의 친환경적 특성을 주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상 생활의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신재료,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에서 개별주거의 건축요소들은 늘 변화할 여지가 있으며, 자연친화적 요소의 적용 여부도 개인의 취향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별 단위주거에서의 자연친화 요소 적용은 지속적 실천에 불확정적인 면이 있다. 반면에 공공공간의 자연친화적 요소는 개인에 의한 임의적 적용이 어려우므로 있어 계획된 요소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유기체적 자연관의 바탕을 이루는 공동체의식 고취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공공공간에의 생태적 요소 적용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마을의 공공공간 중에서 대표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마을길과 공공마당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IV. 자연관이 반영된 마을길과 공공마당의 기능과 공간구성

1. 통과와 장소로서의 마을길

1) 마을길의 기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길’이란, ‘자동차나 우마, 사람 등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오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의 일정한 너비로 뻗은 땅위의 선’⁴⁶⁾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⁴⁷⁾

①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 ②항로(航路), ③도중(途中), ④시간이나 공간을 거치는 과정, ⑤목표로 하는 방향, ⑥방법이나 수단, ⑦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 ⑧여정(旅程), 행정(行程), ⑨방면이나 분야

우리나라에서 ‘길’이란 말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 나라는 기원후 600년 전후에 혜성가와 모죽지랑가의 향가 중에서 ‘道戶’라고 한 것이 바로 길이라고 읽혔다.⁴⁸⁾ ‘길’의 표기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우리 글자로 표기되기 시작했는데, 초기는 ‘길ㅎ’과 같이 이른바 ㅎ개입명사였다가 그뒤 ㅎ첨입음이 사라지고 ‘길’만이 남아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다.⁴⁹⁾

이러한 ‘길’의 한자어는 道路인데 위의 국어사전에서 道路는 ‘사람이나 차들이 다니는 비교적 큰 길’이라고 주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길과 道路는 같다”는 뜻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

한자는 본래 일사일자(一事一字)의 원칙 밑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엄밀하게는 道와 路는 구별된다. 한자에서 길을 뜻하는 글자로 阡(천), 陌(맥), 送(송), 徑(경), 經(경), 通(통), 術(술) 등이 있는데 서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은 徑(경), 送(송), 道(도), 路(로)의 네 가지이다. 徑(경)은 우마가 다닐 수 있는 오솔길이고, 送(송)은 승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 道(도)는 두 대가, 路(로)는 세 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뜻한다.⁵⁰⁾

46) 한주성, 교통지리학, 법문사, 1996, p.92

47) 동아 새국어사전, 2004, 제4판

48) 서울특별시, 서울의 가로명 연역, 1986, p.1

49) 한국도로공사, 한국 도로사, 1981, p.18

서양에서 ‘길’을 나타내는 말로서는 넓은 의미의 길(path), 도로(道路, road), 가로(街路, street)의 세 가지 형태로 대표한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길(path)과 도로(road), 가로(street)를 하나의 개념으로 연상할 수 있으나 세 다는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도로(road)나 가로(street)는 사회적인 규정이고 또한 여기에 부과된 이름과 기능은 사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사용하는 두 단어인 도로(road)와 가로(street)는 그 의미에 있어서 양극성을 띠고 있다.

가로(street)는 라틴어의 “to pave(포장하다)”라는 의미의 “strener”에서 유래되어, 그 표면(surface)이 물리적, 혹은 개념적인 길(way)과는 구별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원적으로, 가로는 한계가 정해진 표면(delimited surface)-양측에 건물들이 줄지어서 연장되는 특성을 갖는 도시 구조의 부분-을 나타낸다. 반면에 도로(road)의 어원은 “ride”이며, 이는 목적지(destination)로 향하는 이동(movement)을 암시하며 또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통행(passage)을 암시하고 있다.⁵¹⁾

도로는 우리로 하여금 장소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물을 보고, 체험하며, 보다 큰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마을에서 외부공간간의 모든 체험은 ‘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자신이 속한 영역과 위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길의 기능은 다음의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 장소와 장소간의 이동을 수반하는 목적동선을 가진 동선분배 시스템으로서의 ‘이동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들 수 있고 둘째, 주거상호간 또는 인접공간과의 분리를 하는 공간으로서 ‘분리·완충’ 기능 셋째, 길이 주거의 앞마당이 되고 옥외의 휴식공간 혹은 작업공간이 되므로써 사회적 행태를 유발하는 ‘사회적 접촉공간’ 넷째, 농사나 또는 가사와 관련된 잔치 및 의례를 행하는 ‘행사공간’을 들 수 있다.⁵²⁾

50) 이경찬, 주거단지내 길의 설계를 위한 설계지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8

51) Stanford Anderson, On Street, Cambridge, M.I.T.Press, 1978, p.15, 박수국, 전통마을 공간의 동선 구조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12에서 재인용

52) 고일석, 영남지방 농촌마을의 길과 장소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16

표 6. 마을길의 기능별 구분

기능별	구분	
이동	 이동	 연속적인 이동
분리	 영역의 구분	 계층의 구분
사회적 접촉	 만남	 대화
	 휴식	 놀이
행사	 잔치	 의례 행사

전통마을의 구성요소들을 서로 연결시켜 하나의 유기적인 영역을 조직하는 마을 길은 두 가지의 실제적 기능을 지니게 되는데, 그 하나는 각각의 주거나 공동시설 물로의 ‘이동의 통로’ 역할이며, 또 하나는 농작물의 건조, 만남, 어린이의 놀이와

같은 '행위의 장소'로서의 역할이다. 길의 형성에는 전자가 우선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겠으며 후자는 형성된 길을 행위의 장소로 이용하는 부수적인 역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이동의 목표점의 위치'라고 하겠다.

이동 목표점으로 마을내부에 있는 주거의 대문을 비롯하여 정자, 마을회관, 사당 등 공동시설물을 들 수 있고, 마을 외부에 있어서는 마을어귀, 인접마을, 농경지 또는 주변의 산과 같은 자연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길의 구성은 이러한 목표점들의 위치관계와 밀접한 영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⁵³⁾

2) 마을길의 구성

(1) 마을길의 구성형태

길은 마을구성의 주요요소로서 마을의 전체적인 골격을 형성하고, 영역을 구획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⁵⁴⁾ 이러한 길들의 집합형태에 따라 크게 '나뭇가지형', '활꼴형', '절충형', '방사형', '수직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마을전체의 구성형태로 보아 '격자형', '방사환상형', '부정형', '지형순응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격자형

평탄한 지역과 고대 및 중세 봉건도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로서 기능의 다양성이 결여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나. 방사환상형

중심부에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사방과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서 중앙집중적인 이동의 흐름이 형성되고, 마을 전체 통일성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다. 부정형

부지의 형상에 따라 순응하여 형성된 형태로서 경사진 지형에서 흔히 볼 수 있다.

53) 박수국, 앞의 책, p.14

54) 김보라, 공공장소로서의 길에 대한 지리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21

라. 지형순응형

기복이 심한 지형에서 나타나는 형태로서 농촌마을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으며, 등고선에 따른 길이 설치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마을길의 위계별 특성

마을길은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위계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마을이미지의 골격을 형성할 뿐 아니라 마을길에 수반되는 공간에까지 명확한 기능의 구분을 제시해 주고, 인간의 행동체계에도 공헌을 하게 된다.⁵⁵⁾

이러한 마을길의 위계는 그 중요도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⁵⁶⁾

가. 큰길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켜주는 도로로서 통과도로의 성격이 강하고 마을 내부의 연결로적 성격은 희미하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주간선도로의 성격과 유사하다. 농촌마을에서 현재의 큰 길로 인식되는 것은 대부분이 신작로라고 불리는 도로이다. 폭이 넓은 경우나 대칭형일 때는 어귀길과 안길의 기능을 포함하기도 하며 길을 따라 주택이 배치되기도 한다.

나. 어귀길

어귀길은 큰길과 마을을 연결시켜주는 마을의 직접적인 진입로이다. 어귀길은 안길에만 연결되며 어귀길 주변에는 주택을 배치하지 않는다. 마을의 연결부인 마을어귀에 정자나무나 장승 또는 기념비를 설치함으로써 마을주민들에게는 물론 외부내방객에게 마을에 대한 인식성을 제고시키며 마을에 진입하는 준비과정을 갖도록 한다.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신작로가 생기면서 차량에 의한 교통이 발달되어 마을주민과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마을입구인 어귀가 쇠퇴하여 외부인에 대한 감시기능도 퇴화되었다. 또한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으로 인하여 마을어귀의 장승이나 당산나무를 미신이라 하여 모두 철거해버렸다. 그러므로 지금의 마을들은 마을진입 준비공간으로

55) 이경찬, 앞의 책, p.3

56) 김용미, 한국 농촌마을의 건축적 질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p. 00

서의 기능을 갖는 마을어귀를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다. 안길

안길은 마을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마을내부의 가장 큰 도로이다. 안길은 어귀길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지형 및 배치의 형태에 따라 어귀길이 없는 경우에는 큰길에서 직접 분리되어 나오기도 한다. 안길은 골목길로서의 동선을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며 마을내부 도로망의 뼈대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안길은 마을전체에 공공마당이나 공공공간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안길은 지형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마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세의 주축과 나란하게 배치되며, 특히 마을내부를 지나는 하천이 있는 경우 하천의 흐름을 따라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마을의 도로망체계가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여 배열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안길은 트인 골목과 혼재하면서 그 존재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마을의 주택이 매우 밀집된 집촌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아주 짧아져서 주택이 밀집된 곳까지의 내부진입도로의 성격을 갖거나, 트인 골목길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특히 지형조건과 배치의 형태에 따라 마을이 한 덩어리로 형성되지 않고 부분별로 나뉘어질 때에는 안길이 트인 골목길과 통합되어서 마을전체가 사용하는 안길이 없어지기도하며 각 부분별로 사용되는 큰 트인 골목길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안길은 큰길 또는 어귀길에서만 갈라져 나온다는 것이다.

라. 골목길

골목길은 마을내부의 도로로서 마을의 일부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길과 연결되는 동시에 주택으로 곧바로 진입하는 트인 골목길과 주택까지의 직접적인 진입통로로서 개인적 통로의 성격을 갖는 막힌 골목길로 구분된다.

골목길은 그 수요가 많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평야지대의 큰 마을인 경우에는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고, 특히 트인 골목길은 안길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골목길은 각 주택들의 개인도로적 성격이 강하고 동시에 몇 채의 주택에 통로를 제공하여 마을 내의 부분적 공공도로의 특성을 갖는다.

마. 텃길

마을내의 공식적인 도로와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텃길은 논둑길, 밭둑길, 산길 등 세 종류로 구분된다. 텃길은 주거지에서 떨어져 위치해 있는 서당·사당·제실·절·정자 등에 연결되거나 그 외에 연료의 수집이나 농사에 이용되는 작업도로라고 할 수 있다. 논둑길과 밭둑길은 각각 논과 논, 밭과 밭 사이의 경계로 설치되며, 그 둑의 높이로 하여 농작물에 대한 방풍의 역할도 하고 있으며, 둑 양쪽에 농업용수를 흐르게 하는 수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텃길은 비록 주택으로의 진입기능은 갖고 있지 않지만, 때로는 골목길이나 안길과 연결되어 각 도로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마을길의 위계를 구분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전통마을을 서양의 주거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듯이 도로의 기능도 그 성격이 비교적 명확한 큰길과 어귀길을 제외하면 길의 경계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길 그 자체에 점이지대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어서 안길을 걷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골목길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길의 경계가 명확한 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면으로 존재하며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⁵⁷⁾

표 7. 마을길의 위계별 구분

구분	큰길	어귀길	안길	골목길	텃길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과 마을의 연결 - 통과교통적 성격 - 간선도로와 유사 (신작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길과 마을의 연결 - 마을의 진입로 - 마을에 대한 인식성 제고(정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내부의 큰 도로 - 마을 전체의 공공 공간 역할도 수행 - 자연의 흐름 순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인 골목길:주택으로 바로 진입 - 막힌 골목길:사적 성격 - 그물망처럼 복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둑길, 밭둑길, 산길 등 - 서당, 사당, 정자 등에 연결 - 논밭 사이의 경계
이미지					

57) 박수국, 앞의 책, pp.17-20

2. 접점과 중심으로서의 공공마당

1) 공공마당의 기능

마당이란 말은 맛, 만, 문과 관련되는 말로 만-포, 만-물으로 육지와 관련되고 문은 무덤으로 地, 土, 田 즉, 땅의 의미로 사용되고 당은 場 즉 場所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당은 땅에 있는 場所, 즉 외부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장소적 개념뿐만이 아닌 활동과 생활을 담는 기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⁵⁸⁾

전통공간에서 건물의 영역 외 마당은 동네마당, 동네우물마당, 동네공동작업장, 마을어귀의 느티나무 및 공공마당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촌사회에서는 주로 마을마당이 모임 및 공연의 장소가 되어왔다. 부락(마당)은 장터와 같이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나, 마을어귀 또는 마을 뒷산 등 마을마다의 고유한 장소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은 부락민의 경제기관인 동시에 오락기관도 되며 따라서 부락민의 생활은 場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마을마당은 동네의 공동작업장으로써 뿐만 아니라, 마당놀이를 행하였던 놀이마당의 기능도 수행했으며, 일마당이 놀이마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놀이는 집단적인 신명과 현실적인 상황, 나아가서는 독립적인 표현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며, 또한 놀이의 성격에 의해 마당의 공간적인 활용이 달라지게 된다.

놀이마당은 타작마당과 같이 어떠한 행위가 수반되는 장소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공간개념으로 우리의 전통적 관념은 마당이라거나 대청과 같은 거주공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을 어귀라거나 장터, 광장, 諸將(제장), 심지어 산과 들판까지도 포함되었다.⁵⁹⁾

공공마당은 한 가구단위나 가족단위의 전용공간으로서의 주택마당과는 달리 마을전체 주민이 활용하고 한 장소에서 다양한 활동을 행하면서 다기능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기능들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의식의 기능

공공마당에서는 마을의 공동제례가 행해지기도 하는데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58) 우경국, 조선시대 주택마당에 관한 연구, 환경과 조경, 1985, p.89

59) 장태현, 도시광장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p.58-61

표 8. 공공마당의 기능별 구분

기능별	구분	
의식	 <p data-bbox="705 498 852 527">제례의 장소</p>	
생산작업	 <p data-bbox="680 736 875 765">생산작업의 장소</p>	
유희	 <p data-bbox="559 975 609 1004">휴식</p>	 <p data-bbox="897 975 1044 1004">축제의 장소</p>
행사	 <p data-bbox="484 1215 680 1244">여가생활의 장소</p>	 <p data-bbox="875 1215 1071 1244">경관조망의 장소</p>

당집을 세우기도 하며 이곳에서 마을의 번영과 제약, 초복(招福) 등을 위한 洞祭(동제)가 행해졌었다.

이로 인하여 마을의 공공마당은 신성한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제의와 축제와 행사의 장소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 것이다.⁶⁰⁾

(2) 생산의 기능

과거의 전통마을에서는 농경생활을 주생활로 하였는데 생산의 능률을 도모하기

60) 김학범, 장동주, 마을숲-한국전통부락의 당숲과 수구막이, 열화당, 1994, p.18

위하여 많은 공동작업을 필요로 하였다. 이로 인해 마을에는 공동의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의 기능으로서의 공공마당을 형성하였다.

(3) 유희의 기능

공공마당은 아이들이 평상시에 모여 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마을의 행사를 행하면서 전통 놀이를 통한 마을의 축제를 벌이기도 하며 유희의 기능을 다하였다.

(4) 휴식의 기능

공공마당은 마을에서 제일 아름답고 중요한 입지에 조성되어 경치를 조망하거나 생업을 마친 마을주민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여 일상사를 나누기도 하였다.

2) 공공마당의 구성요소

공공마당에서 장소성을 갖게 하는 일차적인 물리적 요소는 공간을 에워싸는 환경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⁶¹⁾ 실제로 외부공간은 이 경계요소의 의도적 계획에 의하여 공간감이 부여되는 것이다.



(1) 공간 한정적 수직적 요소

시각적 인지대상으로서의 공간인지의 가장 주된 요소는 둘러싸임에 있고, 둘러싸임의 우세요소는 건물, 담장 등의 수직요소이며, 마당의 폐쇄·개방성은 이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⁶²⁾

외부 공간 형성의 요소인 담장은 시각의 한계점 없이 무한히 전개되는 외부로의 시선을 차단하거나,⁶³⁾ 동선 및 통행을 조절하는 기능과 바람, 소음, 일광 등 자연현상에 대한 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영역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적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공공마당은 휴식과 유희를 위하여 조망점이 수려한 곳에 위치하거나, 생산 활동을 위하여 주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택마당보다

61) 정무용, 한국전통건축의 외부공간의 단계적 질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62) 선우정우, 한국전통주택 마당의 척도·비례 분석을 통한 폐쇄성 및 개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63) 조상묵, 한국 전통주택의 외부공간 구성요소로서의 담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더 많은 개방성을 요구하여 수직적 요소의 기능은 장소적 인식의 한정요소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2) 공간 한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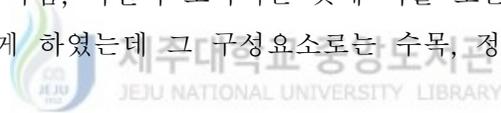
공공마당을 한정하는 수평적 구성요소는 바닥면이며, 바닥면의 포장의 재료나 형태에 따라 공간을 한정하게 된다. 또한 단면적으로 평탄한 장소와 경사진 장소에서 공간의 한정은 달리하게 된다.

(3) 공간 한정 요소

공공마당의 공간을 한정하는 시간적 요소로는 일조권과 계절의 변화, 빛, 바람, 눈, 식생의 성장 등이 있다.

(4) 공간 한정 요소

시각적으로 애매한 부분이나 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형성된 수직적 요소는 물론 바닥의 형태나 마감, 시선이 모아지는 곳에 석물 또는 굴뚝을 놓아 장소성이나 공간감을 풍부하게 하였는데 그 구성요소로는 수목, 정자, 솟대, 장승 등이 있다.



V. 전통마을 사례 조사 및 분석

1. 마을의 유형

1) 마을의 입지유형 분류

마을자리는 땅(山현)과 물(水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입지의 유형이 분류되었다. 이중 지리학자들은 주로 자연 전반에 걸친 지형적 조건에 의해 입지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일본인 학자들은 자연의 전체를 대상으로 마을자리를 분류하였고, 지리학자인 홍경희는 산지·하곡·대지·선산지·충적평야·해안 등 마을이 자리하는 지형적 위치로 구분하였으며, 오홍석은 지형 외에도 거주와 사회·경제적 조건 등에 의해서 마을자리를 입지유형화 하였다.

그러나 조경학과 건축학에서는 마을공간의 특성을 땅과 생활, 건축물과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지형적 입지조건이 공간계획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거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경사지형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땅의 높낮이 정도에 따라 평지·구릉·산지형으로 마을자리를 구분하고, 각 마을자리에서 주거지가 자리하는 경사지형의 지형적 입지조건에 의해 마을국면의 공간감과 구성하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입지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2) 대상지 선정에 대한 입지유형별 특성

우리나라에서의 촌락구성단위인 부락은 1933년 善生永助의 조사에서 약 70,000개가 있으며, 이 중에서 동족부락은 약 15,000여 개로 나타났다.⁶⁴⁾ 1978년 경제기획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락의 수는 64,390개⁶⁵⁾로서 약 50여 년이 지나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마을 중에서 전통마을을 선별하고, 선별된 마

64) 홍경희, 앞의 책, p.334

65) 경제기획원, 한국 통계 연감, 1979, p.19, 김근교, 한국전통마을의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6에서 재인용

을을 대상으로 하여 입지적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연구조건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였는데 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동족부락으로서 입지적 특성이 확연히 나타나야 한다.

둘째, 사적지 혹은 문화적 전통을 지닌 마을로서 농촌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셋째, 공간구조가 체계적인 질서를 지니고 있으며, 원형에 대해 비교적 손상이 적어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마을에 독특한 민속놀이 및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신앙 및 전래의식이 있어야 한다.

전통마을이란 그곳에 몸담고 있어 왔던 사람들의 표상이 어린 곳으로 그곳 특유의 전통문화를 간직하며 후손들이 조상들의 향기와 얼을 느낄 수 있는 마을⁶⁶⁾로 정의되는데, 1960년대 초반부터 전통문화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적인 보존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말에는 역사적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서 우리나라의 몇몇 도시에 남아 있는 한옥군에 대한 보존방안이 추진되었다.⁶⁷⁾

이에 총체적인 전통문화를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우리민족의 원류와 우리 민족의 생활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을 두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민족적 전통이 가장 잘 보존된⁶⁸⁾ 몇몇 마을들을 전통마을로 지정하게 되었는데, 중요민속자료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마을로는 안동하회마을(122호), 성읍민속마을(188호), 월성양동마을(189호), 고성왕곡마을(235호), 아산외암리마을(236호)이 있다.⁶⁹⁾

이외에도 유·무형적인 전통문화를 지니고 있어 보존의 가치가 높아 전통문화마을로 지정된 37개의 마을⁷⁰⁾과 마을공간의 체계적인 구조질서를 가지고 있어 많은 연구의 대상⁷¹⁾이 되고 있는 전통마을⁷²⁾ 등이 있다.

이러한 마을들을 1:5000, 1:25000 지형도(국립지리원)를 통하여 입지적인 특성을

66) 김근교, 앞의 책, p.13

67) 김미진, 도시내 한옥보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68) 문화재관리국, 하회마을 조사보고서, 1979

69) <http://www.ocp.go.kr>

70) 문화체육부, 전통문화마을 보존·전승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 1994, pp.28-30

71) 한국향토사연구 전국 협의회, 한국의 전통마을 1권-22권

72) [http://arch.hannam.ac.kr/""hpw/korea/kor-set-h.htm](http://arch.hannam.ac.kr/)

평지형, 구릉지형, 산지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원형 보존이 잘 되어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평지형의 전라북도 김제시 입석마을(당산제 실시마을),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중요민속자료 122호), 충청북도 충주시 마제마을(방아타령 보존마을), 제주도의 성읍민속마을(중요민속자료 188호)과 구릉지형의 전라남도 해남군 연동마을(고산 유적보존), 전라남도 장흥군 방촌마을(고문서와 전적 보유),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리마을(중요민속자료 236호), 산지형의 경상북도 월성군 양동마을(중요민속자료 189호), 경상북도 포항시 덕동마을(전통한옥보존), 충청북도 영동군 설계리마을(설계리 농요 보존마을)이 각각 선별되었다.

이러한 선별과정 중 마을의 입지가 도심지나 도심지부근의 마을인 경우 마을의 원형적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의 대상지에서 제외하였으며, 마을지정의 사유가 강원도 평창군 창동마을(지정사유 : 이효석 출생지), 경기도 안성군 난실리 마을(지정사유 : 조병화 시인 생가마을) 등과 같이 유명인사의 출생지를 기념하고 있는 마을은 제외시켰다.

상기 선정기준에 의해 선별된 마을들을 문헌과 조사보고서 및 관계관청의 자료 협조를 통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답사를 통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통적인 주거지 공간의 특성이 뚜렷하고 외래문화의 영향을 적게 받아 공간구성적으로 비교적 원형의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마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평지형의 하회마을, 구릉형의 외암리마을, 산지형의 양동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이와는 유사성과 동시에 차별성 그리고 지역적 특이성 또한 보여주는 평지형의 제주도의 성읍민속마을을 연구대상 마을로 선정하였다.

이는 연구의 목적이 원형이 잘 보존된 전통마을을 통하여 마을길과 공공마당의 기능 및 공간구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아울러 입지성이 상이한 마을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2. 대상마을의 구조적 배경

1) 마을의 물리적 여건

(1) 안동하회마을(河回마을)

하회마을의 지형은 낮은 지대의 평지에 위치한 들변관형으로 풍수지리적으로는 태극형(太極形),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 다리미형 등으로 불리어 왔다. 낙동강 줄기가 이 마을을 싸고돌면서 S자형으로 돌아 흐르고 있으며 강 건너 남대안(南對岸)에는 영양 일월산 지맥인 남산이 있고, 마을 동쪽으로 태백산이 지맥인 해발 271m의 화산(花山)이 있다. 이 줄기의 끝이 동네까지 뻗쳐 손등과 같은 아주 낮은 구릉(해발 90m)을 이루고 있다.

이 낮은 구릉형상의 골을 따라 주택들이 세워져 있고 길도 골에 따라 통하고 있다. 즉 자연지형의 경사에 의해 주택과 길들이 구획되어져 있다. 주택들은 중앙의 능선을 등으로 하고 외곽지대로 향하여 세워져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의 모든 좌향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주택과 촌락을 연관지어 볼 때 주택의 집결상태는 과거의 신분관계를 일부 반영하는 듯 보이는데, 촌락의 중심부를 柳씨들이 자리 잡고, 각 성(과거 노비의 연고자 포함)은 변두리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거주하는 가옥의 대부분도 柳씨의 소유라 할 수 있는 실정이다.

하회마을은 마을의 중심을 통과하는 도로에 의해 크게 북촌과 남촌으로 나누어진다. 북촌은 겸암 유운룡 덕인 양진당이, 남촌은 서애 유성룡 덕인 충효당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후에 서애파가 겸암파보다 사회적 지위를 더 얻게 되면서 6대손에 이르러서는 북촌덕과 남촌덕이 각각 세워지게 된다.

이후 하회마을은 북촌은 양진당과 북촌덕이, 남촌은 충효당과 남촌덕이 중심이 되고 그 주변에 가람군들이 위치하여 마을 전체구조로 보면 사분으로 나누어진 주거군의 형태를 보인다.⁷³⁾

하회마을 주변의 고도분석, 향분석, 경사분석을 통하여 보면 대부분의 지형이 완경사지로서 0~5%의 경사가 59.23%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마을의 향은 평지가 41.01%, 북서향이 10.01%로 분포하고 있다.

반가의 향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서향(3채)와 남동향(3채)이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북촌덕과 남촌덕으로 구분되는 영역으로 풍

73) 장영우, 공간구문론을 사용한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조 분석,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 p.6

수적인 입지의 고려에 의하여 주택의 향이 결정되었다기 보다는 조망점이나 경관을 중심으로 주택의 입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하회마을 전경 사진

(2) 외암리마을(外岩里마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외암마을의 위치는 충청남도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 일구 속칭 외암골에 있다. 이 마을은 온양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설화산(雪華山) 동남쪽의 산간분지로 구룡사이 골짜기 아래의 완사면에 위치한 구룡비탈형의 입지에 자리잡고 있다.

마을은 전체적으로 동북에서 서남쪽으로 거의 완만한 평지를 이루며 주위에는 작은 여러 개의 구룡에 기대인 전답으로 이어졌다. 부락이 점하고 있는 면적은 약 40,000 여평으로 마을 중심의 표고는 해발 60m 정도이다.

주변지세를 보게 되면 마을의 남쪽으로는 설운산 계곡에서 시원(始原)된 작은 냇물이 마을을 감싸고 돌아와 동구에서 강당골 쪽으로부터 흐르는 냇물과 합쳐져 평촌방향으로 흐른다. 마을과 주변일대의 배후산인 설운산은 온양과 송악, 배방면 일대를 위압하듯 내려보고 있으며, 이 산의 주봉은 표고 441m로 산정은 매우 뾰족하게 급경사를 이루어 사면에서 바라보아도 그 맑고 빼어난 산세로 하여 영봉이라 칭해진다. 이 산에 의한 설화도 많으며 이 산을 중심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한다.

그중 동쪽 금곡의孟子와 남쪽 예안의李씨 세거는 지방의 명문가로 칭송되고 있다. 또한 이 산의 정상에는 백제 때의 성터가 남아 있다.

마을에서 작은 평원을 건너 서쪽변에는 해발 345m의 황산(荒山)의 연봉(連奉)이 둘러져 있고 남쪽으로는 광덕산(光德山)의 웅장한 모습에 감싸여 골짜기 마다 명승을 이루고 있다.

마을주변의 토양은 대체로 회색토 및 충적토로서 미사와 자갈이 흡입된 식양질 내지 사양질 토지로 배수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화산이었던 설화산에서 후기에 용출한 화강암에 의해 관입되어 주변일대엔 화강암질의 돌이 많다.⁷⁴⁾

외암리 주변의 경사는 0~5%가 44.76%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10~15%의 경사가 21.33%, 5~10%의 경사가 19.27%로 나타났다. 향은 북동향과 동향이 각각 19.12%와 10.87%로 동향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반가의 향은 남향과 서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마을의 입지가 설화산에서 서남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림 6. 외암리마을 전경 사진

74) 새한건축사사무소, 앞의 책, p.11

(3) 양동마을(良洞마을)

양동리는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양동리에 속하며 포항과 안강을 잇는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중턱의 경사지에 위치한 산허리에 입지하고 있다.

부락의 북서쪽으로는 설창산(雪蒼山, 95m)이 뒷배경이 되고 남동쪽으로 성주봉(聖主峰, 109m)이 앞쪽에 놓여져 있으며 서쪽은 안락천과 면하는 절벽을 이루고 있다. 부락의 서쪽에는 북에서 흐르는 안락천과 남에서 흐르는 형산강이 합류하여 동해로 빠지는데, 이 서쪽능선위에서는 간혹 홍수가 일어날 때면 바다로 화한다는 경지정리가 잘된 안강평야를 조망할 수 있다. 가옥들은 부락을 둘러싼 능선들이 “勿”자를 이룬 한 줄기마다 각기 고저의 차이를 두고 둘러져 있는데, 여름철에는 숲에 가려 집들이 잘 안 보일 정도이다.

이 부락에는 200여년 이상된 고색이 창연한 고택들이 20여채 가량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각 능선위 고지에 자리잡고 있어 저지대의 가옥들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고, 대부분의 “口”자형 고가주의 또는 아래쪽에는 여러 채의 초가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 초가들은 원래 가람집이 거주하던 곳이다. 이것만 보아도 반촌의 차



그림 7. 양동마을 전경 사진

별적인 신분구조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⁷⁵⁾

또한 마을 내부는 각 골자기를 중심으로 갈곡, 안골, 몽봉골, 거림, 장터골 등으로 나누어지면서 각각의 영역군을 형성한다.

양동마을 주변의 경사는 안강평야를 주위로 하고 있어 대부분이 평지형인 0~5%에 분포하고 있으며(57.73%), 마을이 입지한 지형을 주위로 5~10%의 경사도가 32.34%로 그 다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향은 북동향이 13.76%, 동향이 11.75%, 북서향이 11.37%로 대부분이 동향으로 분포하고 있다.

양동마을 반가의 향은 서향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북향과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택의 진입향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마을의 입지가 산지형으로 인하여 진입향이 자연지형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4) 성읍민속마을

성읍리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제주도 전체로 볼 때 남동부 지방의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내륙에 위치한다. 제주시로부터 남동쪽으로 334km, 동쪽의 성산포(24km)와 서쪽의 서귀포(36km) 사이의 중앙부분에 위치하며,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6° 48', 북위 33°23' 이 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남제주군 표선면에 속해 있는데 1961년 이후 성읍 1·2리로 분할되었으며, 1·2리를 합쳐서 약 57km²의 면적이다.

성읍리의 기후는 한라산의 영향으로 일기변화가 심하나, 해양성 기후의 특성으로 겨울철에도 비교적 온화한 기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해발 125m 지점에 위치하는 중산간 마을로서 해안지대보다는 기온이 낮은 편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서울 1,369.8mm보다 월등히 많은 1,799mm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최다 강수지역에 속한다. 여름철에는 한라산에 의해 지형성 강수가 빈번하여 천미천의 범람으로 인한 역류현상으로 성읍리의 일부지역은 침수피해를 입기도 한다. 하계집중형의 특징을 보이거나 겨울철에도 비교적 많은 강수현상을 나타낸다.

성읍리는 현무암으로 덮여 있으며 그 위에 1m 내외의 표층이 있다. 토양은 투수성이 강하여 경작지가 극히 제한되고 나무도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잘 맞는 삼나무가 들어오면서 방풍림으로 많이 이용되어 마을의 경관을 바꾸고 있다.

75) 경상북도, 양동마을 조사보고서, 1979, p.18



그림 8. 성읍마을 전경 사진

성읍리는 중산간 지대의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용천수가 전혀 없으며, 천미천은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이며 동부지역을 흐르는 유일한 하천이지만 평상시에는 물이 거의 없다. 하천의 폭과 깊이가 좁고 얕으며, 하천 바닥이 대부분 요철이 심한 암석으로 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에는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다. 천미천은 엄밀한 의미에서 건천이지만 크고 작은 소(沼)들이 즐비하여, 건천임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비교적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다.⁷⁶⁾

성읍마을 주변의 경사는 대부분의 지형이 완경사지로서 0~5%가 44.76%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5~10%의 경사가 21.33%, 10~15%의 경사가 19.27%로 나타났다. 향은 북동향과 동향이 각각 19.12%와 10.87%로 동향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2) 인문환경에 따른 마을의 영역성

(1) 안동하회마을(河回마을)

76) 김영철, 관광지화에 따른 읍성취락 공간구조의 변화-제주도 성읍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14

하회마을은 경상북도 안동군 풍천면에 속해 있는 마을로서 언제부터 사람이 거주했는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근래에 출토되는 유물과 구전 등을 통해 그 기원이 상당히 오랜 것으로 보인다.

이 촌락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향언(鄉彦)으로서 “許씨 터전에 安씨 문전에 柳씨 배판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로 미루어 三性씨가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김해 허씨들이 처음으로 하회마을을 개척했고, 이어서 광주 안씨들이 문중을 이루었으며, 풍산 유씨가 가문이 번성했다는 말이다. 이로 볼 때 이 마을의 원주민은 허씨였던 것 같다. 별신굿의 가면제작자가 “許道令”이라는 전설과 이 마을 柳씨들이 근접부락에 있는 허정승(許政丞)의 묘를 매년 벌초해주는 사실이 바로 이런 짐작을 뒷받침하고 있다. 점차 유씨 문중이 발달하여 최근에는 柳씨, 柳씨의 인척과 柳씨와 연고가 있는 상인들로 이루어져 있다.⁷⁷⁾

유씨의 입향조(入鄕組)는 豊山上리에 살다가 들어온 入世 典書 從惠씨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과 같은 마을의 기반을 조성한 것은 원주목사를 지낸 겸암 유운룡(1539~1601) 선생과 그 동생으로 영의정을 지낸 서애 유성룡(1542~1607) 선생대에 완성되었다.⁷⁸⁾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태극 모양으로 돌아 흐른다하여 하회, 혹은 물도리동이라 하며 풍수지리상 태극형인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길지로 꼽는 중요 전통마을이다. 또는 배가 떠나는 형국인 행주형(行舟形)의 형국이라고도 본다.

행주형의 형국은 사람과 재물이 가득해서 출발하려 하는 배를 멈추어두는 의미로서 이 형의 형국에는 사람 및 재화가 풍성히 모인다고 보는 형국이다. 또한 연화부수형의 형국은 자손이 화려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형국으로 하회는 이 두 가지의 형국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명당이라고 보인다.

우선 하회의 산세부터 보면, 하회는 안산인 花山 자락의 매듭에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을의 취락형태가 원형이어서 태극형의 길지인 하회마을은 형국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화산은 태백산맥의 줄기를 타고 있는 영양의 주산인 일월산의 한 지맥이 남서쪽으로 뻗어 내리다가 낙동강과 만나면서 머무른 나지막한 산이다. 산의 지맥은 마을에 이르러 이미 상당히 약화되고 아래쪽은 들을 이를 정도로 기울기가 아주 완만하고 지맥도 평탄하게 흩어진 듯하다. 마

77) 경상북도, 하회마을 조사보고서, 1979, p.9

78) 정재훈, 한국전통의 원, 도서출판 조경, 1996, p.169

을 사람들은 화산의 지맥이 지금의 충효당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꺾이며 양진당까지 와서 멎었다고 말한다.

풍수지리에 있어 마을의 터잡기의 기본은 배산임수이다. 하지만 하회의 경우 기본적인 배산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형국과 방위가 지니고 있는 생기에 의해 길로 꼽고 있는 것이다.

하회는 마을의 가운데가 가장 높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나지막하다. 그렇다면 하회의 마을도 기본적인 풍수지리의 전저후고를 지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마을의 가장 높은 곳을 등지고 화천을 바라보는 집도 있고, 산을 바라보고 있는 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샷갓을 얹어놓은 형국의 터여서 집의 방향이 제각각이 된 것이라고 본다.

마을길도 반사선형으로 뻗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방사선형으로 난 길도 집의 방향과 마을의 터의 형국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2) 외암리마을(外岩里마을)

이 마을이 형성된 최초의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오랜 옛적부터 취락군을 이루어 농경이 행하여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약 500여년전에 姜씨와 孫씨 등이 정착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李朝 明宗시에 장사랑(將仕郎)을 지낸 李斑일가의 낙향이주로 예산 李씨 세거(世居)가 시작되었으며, 그 후손들이 번창하고 많은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반가급의 고택들이 다수 건립되어 점차 반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李斑의 육대손인 이속(李俗)선생이 雪華山의 우뚝 솟은 영봉정기를 따서 「외암(巍巖)」이라 그의 호를 갖고부터 이것이 마을의 명칭이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 관한 기록은 별로 찾을 수 없으며 英祖 5年刊인 舊邑誌에 「외암리 자관문 남거십리」라고 되어 있다. 한일합방 후인 1914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外岩里)로 되고 그 후 일구(一區)로 분리되었으며 지금도 「외암골」이라 부른다.⁷⁹⁾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광덕산(廣德山)의 남쪽과 북쪽에 긴 골이 매우 많은데, 절과 암자만이 골짜기를 차지한 것이 아니고, 골짜기 마다 여염집과 밭고랑이 서로 뒤섞여서 긴 숲과 담수 위에 숨바꼭질하듯 하니, 완전한 하나의 挑園圖이다」 하

79) 새한건축사사무소, 외암리 민속마을, 아산군, 1983, pp.12-13

여80) 광덕산일대의 산수가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 하였다.

외암리의 주산은 설화산이다. 안산(案山)은 마을 건너 들에 약간 솟아 오른 언덕인 바람동산이 되고, 조산은 서쪽의 황산(荒山)이라는 설과 남쪽의 광덕산이라는 설이 있는데, 설화산과 마을의 중심에서 보면 서쪽의 황산이 정면의 시야에 들어오므로 황산을 조산(朝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靑龍은 설화산에서 마을 왼쪽의 하천 건너 열성지기들 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이다. 白虎는 외암(巍巖)의 묘가 있는 삼성댕이골로 내려오는 낮은 능선이 되는데, 이 능선에 의해 이웃 마을과 구분된다. 이 능선은 완사면상의 고도가 낮게 내려오다가 말단부에서 고도를 약간 높여 고립 구릉을 형성한다. 또한 白虎에는 동수를 심어 비보(裨補)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고립 구릉의 중심에 외암(巍巖)의 묘소가 있다. 태조산은 광덕산이고, 광덕산은 차령산맥에서 갈라져 나오며, 남쪽 멀리 위치한다.

설화산의 산형은 탐랑성(貪狼星)으로 크게는 木星에 해당된다. 설화산은 붓 끝같은 봉우리가 솟아 있어서, 그 기세가 매우 영특하고 장관이므로 이 산이 비치는 곳에는 인물이 많이 난다고 한다.⁸¹⁾

배후의 여유 토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치우쳐 촌락이 입지하는 것은 풍수적인 면에서 白虎의 고도가 낮으므로, 촌락이 조금만 북쪽으로 이동하여도 장풍(藏風)의 이(利)를 얻기 어려운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신사에 의해 영역성이 확보되고 생기가 모일 수 있는 보다 낮은 고도에 촌락을 입지시킨 것이다.

내수는 두 곳에서 온다. 설화산 계곡에서 시작되어 마을 입구로 흘러 나가는 물과, 다른 하나는 이 동네에서 반석다리 큰물이라 부르는, 강당골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계곡에서 시작되는 물은 마을의 북동쪽에서 시작되어 마을 남쪽을 감싸면서 서쪽으로 흐르고, 반석다리 큰물은 마을 남쪽 강당골에서 시작되어 북쪽으로 흐르다가 마을 입구의 반석교에서 두 물이 합쳐져 북서쪽으로 흐른다. 외수는 근대골천으로 송악저수지로부터 서남방에서 마을로 향하여 오다가 송악교 부근에서 합쳐져 북쪽으로 흐른다. 따라서 외수의 득은 곤신득(坤申得)이다. 파(破)는 내수가 마을의 서북향으로 흘러 나가므로 건해파(乾亥破)가 되고, 이 마을의 수는 왼쪽에서 와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므로, 양수음래격(陽受陰來格)이 되어 길하다.⁸²⁾

80) 이중환 저,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p.173

8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74, p.150

82) 심혜자, 앞의 책, 0000, 000

설화리는 설화산-외암골 축의 중심을 벗어나 외암골의 하곡 입구에 위치한다. 이는 설화산에서 외암골로 들어오는 입수의 맥을 벗어나 있는 것으로 지맥을 끊지 않기 위한 것이다. 설화산-외암골 축에 설화리가 입지하면, 외암골 상단에 위치하는 종가와 마을 전체를 굽어보는 위치가 되므로, 이를 피했다.⁸³⁾

(3) 양동마을(良洞마을)

양동리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는가를 선생영조(善生永助)는 신라시대에 牙山 蔣씨가 처음 이 부락을 구성하여 약 5~6호가 거주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기록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1970년 문화재관리국 발굴단에 의해 긴급발굴을 끝내고 수몰된 인근 안계리의 통일신라시대 고적군이나 이 마을 앞산 격인 성주봉(聖主奉, 109m) 정상의 구릉지에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석관묘 백여구 가량 파괴된 채로 노출되어 있는 것과 연관시켜 보면,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적들로 미루어 보아 경주 문화의 변경지역이 아니었던가 추정된다.

부락민들에 의하면 양동은 '외계의 마을'이라고 하는데, 고려때에는 오태사(吳太師)→장태사(蔣太師)로 이어지고, 조선때에는 유복하(柳復河)→손소(孫昭)→이반(李斑)등으로 이어지면서 외계들이 마을을 형성하였다하여 양동에는 5도입이 있었다고 한다. 입향조는 이렇게 이어지나 고려말에는 월성 李씨가 살았다고 하며, 그 이전까지는 良村이라 불리우던 것이 그때부터 良村으로 개칭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조선초기의 문헌으로 양동 孫씨 대종가 소장의 宗吉文(1613)의 기록으로 보아 아산 蔣씨가 고려말경에 거주했던 것은 추정할 수 있지만 오태사(吳太師)나 월성 李씨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락의 입향조는 월성 손씨 4세 孫士晟의 次子인 讓敏公 孫昭(1433~1484)로 알려져 있다. 그는 처음 풍덕 柳씨 柳復河의 상속자로 이 부락에 입향, 현재의 월성 孫씨 종가를 신축하였다고 한다(520년전). 그러나 현재는 풍덕 柳씨의 후손이 한 사람도 살지 않으므로 월성 孫씨 문중에서 외손봉사(外孫奉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부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양동리의 연강 李시는 월성 孫씨의 외손이 되는 것이나 두 동족집단간의 갈등이나 경쟁은 다방면으로 나타난다. 이 점은 과거에는 중앙에로의 진출 또는 선조의 명소문제(소위 명당다툼)로 오늘날에는 자

83) 심혜자, 앞의 책, 0000, 000

녀교육의 경쟁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 동족집단의 성원간에 결혼을 통하여 공존과 조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⁸⁴⁾

양동마을은 ‘勿’자형의 형국으로 문자형의 형국에 속하는 형국이다. 이 형국은 손소(孫昭)의 집터를 잡아 준 풍수사가 기름진 땅에서는 큰 인물이 나지 않는다며 현재의 ‘勿’자형의 능선을 따라 내려온 산비탈에 자리를 정해 주었다 한다. 그곳이 이른바 양동마을의 ‘勿’자형 혈맥이 맺힌 곳으로 三賢先生之地라는 것이다. 풍수사는 이 집터에서 세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의 말대로 손소(孫昭)의 아들 중 이조판서를 지낸 청백리 손중돈(孫仲墩)이 나왔고 동방 5현 중의 한 사람인 이언적 또한 여기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이 명당의 형국은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 두 집안을 경쟁관계에 있도록 만들었다. 옛날의 명당터 다툼에서부터 지금의 자녀교육을 통한 경쟁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심한 편이었다.

또한, 두 가문의 대립관계는 마을 내의 주택배치에서도 나타나는데 두 집안의 가장 큰 분가인 향단과 관가정이 힘을 겨루듯 서 있다.

(4) 성읍민속마을

제주 성읍민속마을은 1423년 이래 약 5세기간 정의현(旌義縣)의 현청(縣廳) 소재지로서의 맥을 이어온 유서 깊은 마을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래 정의현청은 태종 16년(1416) 안무사(按撫使) 오식(吳湜)의 건의에 따라 성산면 고성리에 정의성을 축성하였으나, 현청이 동쪽에 너무 치우쳐 행정상 불편할 뿐 아니라 태풍의 피해가 잦고 또한 우도가 가까이 있어 왜적(倭賊)으로부터의 침입이 빈번하였으므로 안무사 정간(鄭幹)이 건의하며 세종 5년(1423), 당시 진사리(晋舍里, 현 표선면 성읍리)로 현청을 옮기게 되었다 한다.

따라서 일명 진사성이라고도 불리었던 정의성은 축성을 시작한지 불과 5일만에 세종 5년 정월 13일에 총 둘레 2,986尺, 높이 13尺의 규모로 완성되었는데, 성에는 동·서·남으로 세 개의 문을 두었고 성안에는 두 곳의 우물이 있었다.

읍치로서의 정의성은 축성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가호(家戶)를 포괄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숙종 28년(1702) 이형상(李衡祥) 목사의 탐라순역도(耽羅巡歷圖)에 의하면 당시 민가 호수가 1,436호, 전답(田畓)이 140결(結), 성수비군

84) 경상북도, 양동마을 조사보고서, 1979, pp.10-11

(城守備軍_이 664명, 말 1,178필, 흑우(黑牛) 228수를 보유할 정도의 상당히 번성했었다고 한다.

순조 26년에는 성안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민가 80여 동이 소실되는 재난을 겪은 적도 있었으나, 군(郡)으로 승격되어 군수(郡守)를 두게 되면서 성읍은 제주목의 관할에서 벗어나 전라도 관찰사의 관할아래 소속되었다. 그러나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상 불편이 많자 고종 32년(1895)에 그는 지방제도 개편과 더불어 제주를 부로 고쳤으며 따라서 목사는 관찰사로 바꾸었고, 판관(判官)제도를 참서관제도로 개편하여 군수를 겸하게 되었다.

광무 10년(1906)에는 고종 33년(1896)에 부활됐던 목사제도가 다시 폐지되어 군수를 두게 되었고, 급기야 1914년에 정의군은 대정군과 함께 제주군에 합병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423년 이후부터 약 5세기 동안 정의현의 도읍지로 번성하였던 성읍은 차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다가 다시 1915년 5월 1일부로 제주군제도 마저 폐지되고 도제가 실시되면서 정의고을이었던 성읍은 표선면 면소재지로 전락하게 되었다(지금의 표선면은 1935년 동중면이 개칭된 이름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읍민속마을은 그 역사적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여 문화재적 차원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주도 지정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되었고, 이어 1984년 6월에는 총 1,425필지 3,191.711㎡의 면적이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188호)로 승격되었으며, 1978년 9월에는 보호구역이 935필지(790.747㎡)로 약간 축소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대상마을의 마을길과 공공마당의 분석

1) 분석기준의 설정

전통마을의 ‘길’과 ‘공공마당’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각각의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길’은 연속적인 성격과 동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공공마당’은 비교적 완결적이며 정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길’과 ‘공공마당’을 분류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길의 분석 항목 및 기준 설정

가. 마을길의 위계별 위치조건

마을길은 그 위계에 따라 크게 큰길, 어귀길, 안길, 골목길, 텃길의 다섯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귀길과 안길, 골목길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마을길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안길은 안길-순환로와 안길-관통로로 구분하고, 골목길은 트인 골목길과 막힌 골목길을 구분하여 연구진행하였는데, 그에 대한 위치조건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9. 마을길의 위계별 위치조건

위계별	분석기준
큰길	마을에서 마을 사이에 위치
어귀길	큰 길에서 마을 진입부에 위치
안길-순환로	마을의 외곽에 위치
안길-관통로	마을의 내부에 위치
트인 골목길	안길-관통로에서 교차점까지
막힌 골목길	교차점에서 주택의 입구까지

나. 마을길의 기능조건

마을길은 ‘이동’, ‘분리’, ‘사회적 접촉’, ‘행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같은 길안에서 복합적인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능에 따른 분류를 위하여 각 길의 주기능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0. 마을길의 기능조건

기능별	분석기준
이동	목적지에서 목적지로의 목적동선을 가지는 길
분리	토지 이용의 한계를 규정하는 영역의 구분이나 신분예 따른 위계를 구분하는 길
사회적 접촉	주민간의 자연스런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는 길
행사	생산작업이나 의례행사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는 길

다. 마을길의 집합 형태조건과 변환방법

마을길은 집합의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을전체의 형태에 따라 물리적인 특성을 달리한다. 아울러 마을길의 변환방법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1. 마을길의 집합 형태조건과 변환 방법

형태별	분석기준
집합부분 형태	나뭇가지형, 활꼴형, 절충형, 방사형, 수직형
마을전체 형태	격자형, 방사환상형, 부정형, 지형순응형
변환 방법	분기점 - 세갈래, 네갈래 교차점 - 세갈래, 네갈래

라. 마을길의 물리적 조건

마을길은 길이와 폭, 경사도에 의해 그 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데, 길의 변환점과 변환점 사이를 한 단위로 하여 길이와 폭, 경사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마. 마을길의 수량적 조건

길의 물리적 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수량적 조건의 기준을 살펴보면, 길의 길이는 마을위치와 주거배치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르이 폭은 우마차폭⁸⁵⁾과 사람의 보행폭⁸⁶⁾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였는데, 각 길의 위계에 따라 어귀길은 우마차의 교차이동이 가능하거나 상여⁸⁷⁾와 같은 특정의레가 가능한 폭으로서, 두 대의 우마차가 교차할 수 있는 폭인 170cm 이상이거나 양반상여의 폭인 432cm 이상⁸⁸⁾이어야 한다. 안길은 우마차 1대와 1인의 이동이 가능한 폭으로 160cm 이상이어야 하며, 트인 골목길은 인접 담의 높이보다 넓고 우마차 1대가 회전할 수 있는 폭인 150c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막힌 골목길은 인접담의 높이와 같거

85) www.yescall.com/macha/page01.htm 2000년 수레부본 전승자로 선정된 '수레길 우마차'의 규격을 보면 285cmX85cm로 나타나고 있다.

86) 심상렬 외 5인 공저, 조경설계요람, 도서출판 조경, 1998, p.224에서 보행자 1인의 점유폭을 0.75m로 규정하고 있다.

87) 두산대백과 사전 Encyber,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보존된 상여 크기인 길이 312cm, 너비 132cm, 높이 220cm인 대형상여를 기준하였다.

88) 양반상여는 좌우에 두 명씩 네 명이 쫓아지는 것을 토대로 폭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상여너비 132cm + 한 사람의 폭 75cm X 4명=432cm)

나 우마차가 통행할 수 있는 폭인 85cm 이상을 지녀야 한다.

변환방법으로는 어귀길은 텃길 이외에 다른 마을과의 교차나 분기점이 없는 길이어야 하며, 안길은 교차 및 분기점이 조건에 따라 다르고 횡수도 다양하며, 방향성과 길의 폭이 유지되어야 한다.

길의 경사도는 위계에 따라 어귀길은 우마차와 상여가 이동할 수 있는 8% 이하의 경사도를 지니며, 안길은 짐을 실은 우마차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10% 이하의 경사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골목길은 짐을 실은 우마차가 인력의 도움으로 이동할 수 있는 15% 이하의 경사도를 지니게 된다.⁸⁹⁾

(2) 공공마당의 분석 항목 및 기준 설정

가. 공공마당의 기능별 조건

공공마당은 ‘의식’, ‘생산’, ‘휴식’, ‘유희’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2. 공공마당의 기능조건

기능별	분석기준
의식	마을의 동제와 관혼상제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마당
생산	마을 공동작업의 장소로 이용되는 마당
휴식	여가활동 및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마당
유희	놀이를 행할 수 있는 마당

나. 공공마당의 구성조건

공공마당은 진입도로 폭보다 넓은 면적을 지니면서, 2가구 이상의 모여 기능을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공동체의 전체모임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공공마당을 장소로 인식하기 위하여 공간을 한정시키는 ‘제한적 요소’와 공공마당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단면 요소’, ‘시간적 요소’, ‘수식적 요소’를 들 수 있는데 그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89) 심상렬 외 5인 공저, 조경설계요람, 도서출판 조경, 1998, p.226-228에서 서술된 보행자 경사도의 최대폭 8%와 자전거도로의 최대 경사도 15%를 참고로 하여 분석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13. 공공마당의 구성조건

구성조건	분석기준
제한적 요소	건물, 담, 길, 내(川), 경작지, 숲
단면 요소	평탄지, 경사지
시간적 요소	일조권, 계절 변화
수식적 요소	수목, 정자, 솟대, 장승

다. 공공마당의 물리적 유형조건

공공마당의 물리적 유형조건은 ‘평면적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공간위요의 조건에 따라 ‘평면조건’과 ‘단면조건’에 의해 분류할 수 있으며,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4. 공공마당의 물리적 유형 조건

유형 조건	분석기준
평면적 유형	기하학의 형태 - 방형, 원형, 삼각형, 다각형 비기하학의 형태
공간 위요의 평면조건	인위적인 형태, 자연적인 형태, 혼합된 형태
공간 위요의 단면조건	수직적 요소, 지형적 요소, 토지이용적 요소

라. 공공마당의 수량적 조건

공공마당의 수량적 조건으로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마당의 수와 마당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 마을길의 기능과 구성분류

(1) 마을길의 위계별, 기능별 분류

가. 하회마을

하회마을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형태의 마을로 북쪽으로 산고개를 넘어 풍산(豊山)과 통하는 육로와 강을 건너 광덕(廣德)으로 통하는 길로만 마을의 외부와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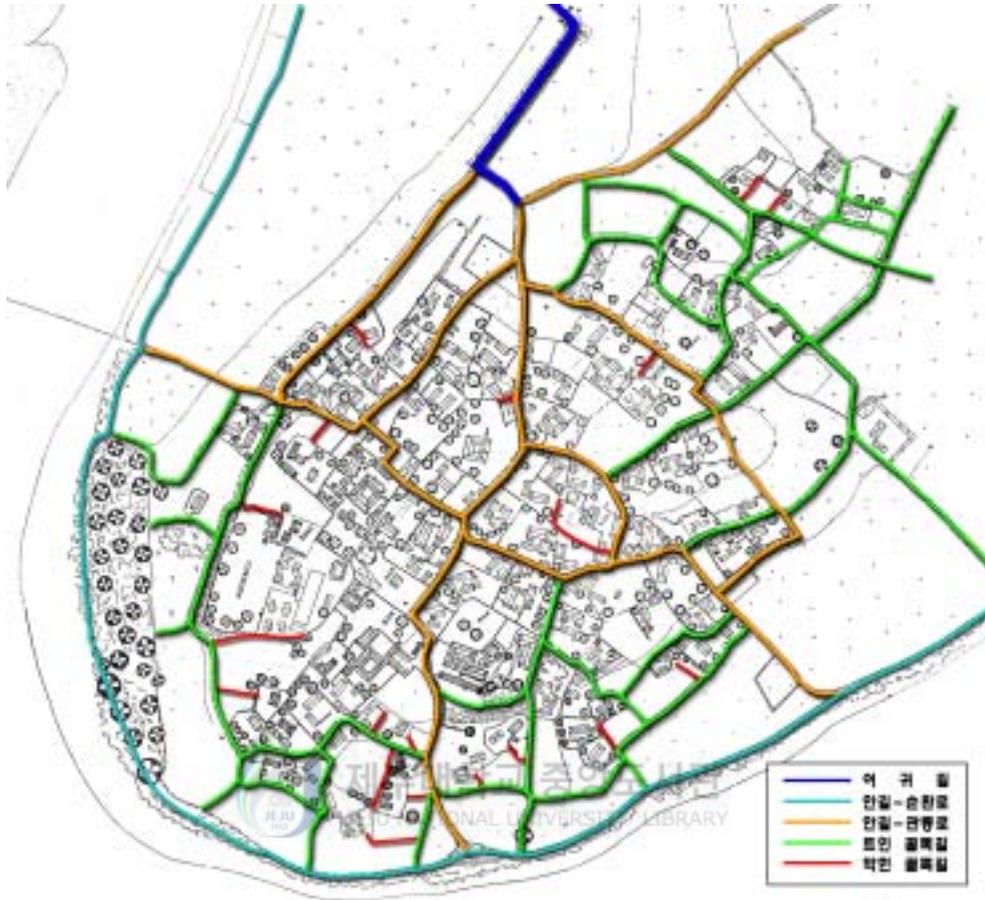


그림 9. 하회마을 길의 위계별 분석도

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와같은 하회마을의 길은 전체 6,674.71m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귀길은 4.37% (291.84m), 안길-순환로는 17.53%(1,170.24m), 안길-관통로는 29.82%(1,989.33m), 트인 골목길은 40.53%(2,705.08m), 막힌 골목길은 7.76%(517.92m)로 분포하고 있다.

마을길의 위계에 따른 기능을 분석한 결과, 어귀길에는 행사의 기능과 안길-순환로는 이동의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길-관통로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사회적 접촉의 기능이 40.6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트인 골목길에서는 이동(69.43%)과 사회적 접촉(30.57%)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막힌 골목길은 주로 이동(91.61%)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행사의 기능도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0. 하회마을 길의 기능별 분석도

표 15. 하회마을 길의 위계별, 기능별 구성비

구분	이동	분리	접촉	행사	계
어귀길				291.84 (4.37)	291.84 (4.37)
안길-순환로	1170.24 (17.53)				1170.24 (17.53)
안길-관통로	669.15 (10.02)	511.88 (7.66)	868.30 (12.11)		1989.33 (29.60)
트인 골목길	1878.06 (28.13)		827.02 (12.39)		2705.08 (40.55)
막힌 골목길	474.49 (7.10)			43.43 (6.65)	517.92 (7.75)
계	4191.84 (62.81)	511.88 (7.66)	1635.32 (24.50)	335.27 (5.92)	8674.41 (100.00)

마을길의 기능에서 이동의 기능은 전반적인 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분리의 기능은 안길-관통로에서, 사회적 접촉의 기능은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에서, 행사의 기능은 어귀길과 막힌 골목길에서 나타나고 있다.

나. 외암리 마을

외암리 마을의 마을길은 전체 3,718.71m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귀길은 1.91%(71.14m), 안길-순환로는 24.17%(898.77m), 안길-관통로는 15.74%(585.34m), 트인 골목길은 51.67%(,921.42m), 막힌 골목길은 6.51%(242.04m)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11. 외암리마을 길의 위계별 분석도

외암리 마을에서도 전반적인 마을길에서 이동의 기능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리의 기능은 안길-관통로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접촉의 기능은 트인 골목길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마을과는 달리 안길-관통로의 기능이 분리와 행사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행사의 기능은 어귀길(24.66%)과 안길-관통로(75.34%)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 외암리마을 길의 기능별 분석도



표 16. 외암리마을 길의 위계별, 기능별 구성비

구분	이동	분리	접촉	행사	계
어귀길				71.14 (1.91)	71.14 (1.91)
안길-순환로	898.77 (24.17)				898.77 (24.17)
안길-관통로		444.86 (11.96)		140.48 (3.76)	585.34 (15.74)
트인 골목길	148.95 (4.01)		1772.47 (47.66)		1921.42 (51.67)
막힌 골목길	242.04 (6.51)				242.04 (6.51)
계	1289.76 (34.68)	444.86 (11.96)	1772.47 (47.66)	211.62 (5.69)	3718.71 (100.00)

다. 양동마을

양동마을의 길은 전체 10,530.53m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귀길은 1.96%(206.57m), 안길-순환로는 7.32%(771.06m), 안길-관통로는 25.77%(2,714.61m), 트인 골목길은 46.57%(4,902.44m), 막힐 골목길은 18.30%(1,935.85m)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13. 양동마을 길의 위계별 분석도

양동마을에서는 어귀길은 행상의 기능을 안길-순환로는 이동의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길-관통로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분리의 기능이 47.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트인



그림 14. 양동마을 길의 기능별 분석도

골목길에서는 이동의 기능(55.89%)과 사회적 접촉의 기능(44.11%)을 보이고 있으며, 막힌 골목길은 이동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마을들과 같이 전반적인 마을길에서 이동의 기능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리의 기능은 안길-관통로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접촉의 기능은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행상의 기능은 어귀길과 안길-관통로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17. 양동마을 길의 위계별, 기능별 구성비

구분	이동	분리	접촉	행사	계
어귀길				206.57 (1.96)	206.57 (1.96)
안길-순환로	771.06 (7.32)				771.06 (7.32)
안길-관통로	459.54 (4.36)	1285.40 (12.21)	338.67 (3.22)	631.00 (5.99)	2714.61 (25.77)
트인 골목길	2739.93 (26.02)		2162.51 (20.54)		4902.44 (46.57)
막힌 골목길	1935.85 (18.38)				1935.85 (18.38)
계	5699.81 (56.09)	1285.40 (12.21)	2501.18 (23.75)	637.57 (7.95)	10530.53 (100.00)



그림 15. 성읍마을 길의 위계별 분석도

라. 성읍민속마을

성읍마을은 일본의 침범을 피하여 해안마을에서 중산간으로 자리를 옮겨 형성된 마을로 지리적으로 고립된 형태의 마을로 전통마을의 특성을 잘보여줬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개발 시기에 큰 차로를 뚫고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의 행위로 현재는 전통마을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리만치 훼손되어 있다.

이와같은 성읍민속마을의 길은 전체 8,547.71m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귀길은 3.75%(320.54m), 안길-순환로는 17.44%(1,490.73m), 안길-관통로는 28.72%(2,454.91m), 트인 골목길은 39.33%(3,361.81m), 막힌 골목길은 10.76%(919.72m)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16. 성읍마을 길의 기능별 분석도

표 18. 성읍마을 길의 위계별, 기능별 구성비

구분	이동	분리	접촉	행사	계
어귀길				320.54 (3.75)	320.54 (3.75)
안길-순환로	1,490.73 (17.44)				1,490.73 (17.44)
안길-관통로	282.37 (4.32)	1215.48 (14.22)	436.79 (5.11)	520.27 (5.07)	2,454.91 (28.72)
트인 골목길	1483.75 (13.94)		2170.26 (25.39)		3,361.81 (39.33)
막힌 골목길	919.72 (10.76)				919.72 (10.76)
계	3884.38 (46.46)	1215.48 (14.22)	2607.05 (30.50)	840.81 (8.82)	8,547.71 (100.00)

마을길의 위계에 따른 기능을 분석한 결과, 어귀길에는 행사의 기능과 안길-순환로는 이동의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길-관통로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마을을 분리하는 기능이 14.22%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트인 골목길에서는 사회적 접촉(69.43%)과 이동(30.57%)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막힌 골목길은 주로 이동(91.61%)의 기능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마을과 달리 행사의 기능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길의 기능에서 이동의 기능은 각 위계별 길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분리의 기능은 안길-관통로에서, 사회적 접촉의 기능은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에서, 행사의 기능은 어귀길과 안길-관통로에서 나타나고 있다.

(2) 마을길의 집합형태와 변환방법

가. 하회마을

하회마을길의 집합형태는 마을외곽은 절충형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 내부에서는 주로 방사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집합형태들이 어우러져 마을 전체는 방사환산형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마을길의 변환방법은 안길-순환로에서는 분기점이,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에서는 세 갈래의 교차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안길-순환로는 이동 기능을 역활하고 있어 분기점으로 변환되고 있으며,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에서는 사회적 접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주민들간의

표 19. 하회마을 길의 변환 방법

위계별	개소	분기점		교차점	
		세 갈래	네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어귀길	2	1		1	
안길-순환로	10	10			
안길-관통로	29	7		17	5
트인 골목길	27	6		20	1
총계	68	24		38	6

접촉기회가 많은 교차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외암리마을

외암리마을길의 집합형태는 대부분이 나뭇가지형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마을전체는 구릉지형태에 순응하고 있는 지형순응형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마을길의 변환방법은 대부분이 세 갈래의 분기점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어귀길과 안길-순환로는 분기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변환방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대상마을에 비해 외암리마을의 규모가 적어 대부분의 변환형태가 분기점으로 나타는 것으로 판단되며, 트인 골목길에서는 사회적 접촉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당한 교차점의 변환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20. 외암리마을 길의 변환 방법

위계별	개소	분기점		교차점	
		세 갈래	네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어귀길	2	2			
안길-순환로	10	10			
안길-관통로	10	5	1	1	3
트인 골목길	15	4		7	4
총계	35	21	1	8	7

다. 양동마을

양동마을길의 집합형태는 대부분이 나뭇가지형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마을전체는 산지형태에 순응하고 있는 지형순응형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마을길의 변환방법은 대부분이 세 갈래의 분기점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어귀길과 안길-순환로는 분기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변환방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마을의 입지가 산지형으로 대부분의 변환형태가 주거지로 가기 위한 분기점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에서는 사회적 접촉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당한 교차점의 변환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21. 양동마을 길의 변환 방법

위계별	개소	분기점		교차점	
		세 갈래	네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어귀길	1	1			
안길-순환로	4	3	1		
안길-관통로	39	11	9	11	8
트인 골목길	43	12	10	12	9
총계	87	27	20	23	17

라. 성읍마을



성읍마을길의 집합형태는 활꼴형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 내부는 하회마을과 유사한 방사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마을 전체는 방사환산형의 집합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마을길의 변환방법은 안길-순환로에서는 분기점(12곳)이,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에서는 세 갈래의 교차점이 각각 16곳과 17곳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표 22. 성읍마을 길의 변환 방법

위계별	개소	분기점		교차점	
		세 갈래	네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어귀길	4	2		1	
안길-순환로	12	12			
안길-관통로	27	7		16	4
트인 골목길	31	7		17	1
총계	74	28		34	5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안길-순환로는 이동 기능을 역활하고 있어 분기점으로 변환되고 있으며,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에서는 사회적 접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주민들간의 접촉기회가 많은 교차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마을길의 물리적 유형

가. 하회마을



그림 17. 하회마을 길의 물리적 특성 분석도

표 23. 하회마을 길의 길이 분포

위계별 길이(m)	어귀길	안길- 순환로	안길- 관통로	트인 골목길	막힌 골목길	개소
0-10					2	2
11-20			6	2	7	15
21-30			3	8	6	17
31-40		3	5	5	1	14
41-50			2	8	3	13
51-60			5	6		11
61-70		1	4	6		11
71-80		2	3	7	1	13
81-90			1	1		2
91-100		1	1	1		3
101-110		1		1		2
111-120			1	1		2
121 이상	1	3	3	1		8
총계	1	11	34	47	20	113

하회마을의 평균도로폭은 3.27m이며, 경사도는 4.35%로서 평지형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마을길 길이는 11~80m에 분포하고 있으며, 21~30m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귀길과 안길-순환로는 120m 이상의 긴 거리를 보이고 있으며,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은 다양한 길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막힌 골목길은 11~30m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어귀길과 안길-순환로는 대부분 이동과 행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길로서 길이가 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길이의 분포를 보이는 것을 사료된다.

마을길 폭의 대부분은 1~6m에 분포하고 있으며, 1~2m 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어귀길은 6~7m, 안길-순환로는 5~6m, 안길-관통로는 4~5m, 트인 골목길은 1~2m, 막힌 골목길은 2~3m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마을길의 폭에 따라 그 위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4. 하회마을 길의 폭 분포

위계별 폭(m)	어귀길	안길- 순환로	안길- 관통로	트인 골목길	막힌 골목길	개소
0-1				5	3	8
1-2			2	19	5	26
2-3			7	7	8	22
3-4			7	7	4	18
4-5			8	5		13
5-6		6	5	3		14
6-7	1	4	3	1		9
7-8		1	2			3
총계	1	11	34	47	20	113

나. 외암리마을

외암리마을길의 도로폭은 평균 4.44m으로 나타났으며, 경사도는 3.35%로서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있다.



그림 18. 외암리마을 길의 물리적 특성 분석도

표 25. 외암리마을 길의 길이 분포

위계별 길이(m)	어귀길	안길- 순환로	안길- 관통로	트인 골목길	막힌 골목길	개소
0-10						
11-20					1	1
21-30	1			5	4	10
31-40			2	12		14
41-50	1	1	1	8		11
51-60		2	2	3		7
61-70				3	1	4
71-80			1	1		2
81-90			2	1		3
91-100				1		1
101-110		3		2		5
111-120		2	1	2		5
121 이상		1				1
총계	2	9	9	38	6	64

안길-순환로는 100m 이상의 긴 길이를 보이고 있으며, 안길-관통로는 다양한 길이를 보이고 있다. 트인 골목길은 31~50m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막힌 골목길은 21~30m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안길-순환로는 대부분 이동의 기능을 수행하는 길로서 길이가 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길-관통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을길 폭의 대부분은 1~6m에 분포하고 있으며, 5~6m 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어귀길은 5~6m, 안길-순환로와 안길-관통로는 다양한 폭을 지니고 있으며, 트인 골목길은 5~6m, 막힌 골목길은 1~3m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외암리마을의 내부에 위치한 공공마당의 분포에 의해 길의 폭이 다른 대상마을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26. 외암리마을 길의 폭 분포

위계별 폭(m)	어귀길	안길- 순환로	안길- 관통로	트인 골목길	막힌 골목길	개소
0-1				1		1
1-2			1	1	3	5
2-3			1	8	3	12
3-4		2	1	9		12
4-5		2	1	5		8
5-6	2	1	1	11		15
6-7		1	2			3
7-8		2	1			3
8-9		1	1			2
9-10				2		2
10 이상				1		1
총계	2	9	9	38	6	64

다. 양동마을

양동마을길의 도록폭은 평균 2.89m으로 나타났으며 경사도는 8.98%로서 산지형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마을길 길이는 0~60m에 분포하고 있으며, 11~20m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귀길과 안길-순환로는 120m 이상의 긴 길이를 보이고 있으며,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은 다양한 길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막힌 골목길은 0~20m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귀길과 안길-순환로는 대부분 이동과 행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길로서 길이가 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길이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양동마을의 입지적인 특성이 산지형의 마을로 길의 길이에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을길 폭의 대부분은 0~8m에 분포하고 있으며, 1~2m 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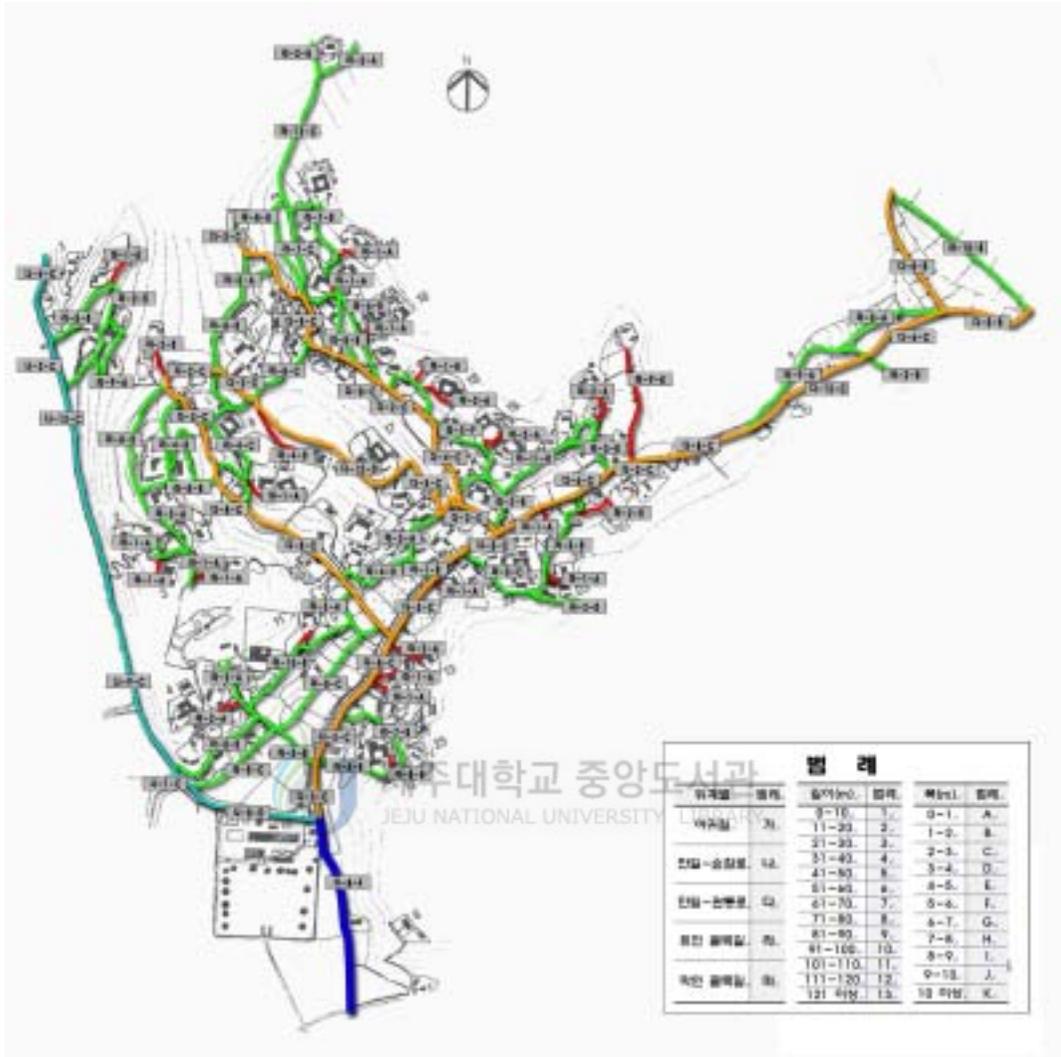


그림 19. 양동마을 길의 물리적 특성 분석도

어귀길은 5~6m, 안길-순환로는 5~6m, 안길-관통로는 3~4m, 트인 골목길은 1~2m, 막힌 골목길은 1~2m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마을길의 폭에 따라 그 위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되어지며, 양동마을의 입지가 산지형으로 인하여 길의 폭이 다른 대상마을에 비하여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표 27. 양동마을 길의 길이 분포

위계별 길이(m)	어귀길	안길- 순환로	안길- 관통로	트인 골목길	막힌 골목길	개소
0-10			1	1	35	37
11-20			3	13	31	47
21-30			7	12	11	30
31-40			4	14	2	20
41-50			6	12	5	23
51-60		1	3	9	3	16
61-70			2	2		4
71-80			4	1		5
81-90					3	3
91-100			1	2	2	5
101-110		1	5	6		13
111-120			1	3	1	5
121 이상	1	3	4	9		17
총계	1	6	41	84	93	225

표 28. 양동마을 길의 폭 분포

위계별 폭(m)	어귀길	안길- 순환로	안길- 관통로	트인 골목길	막힌 골목길	개소
0-1			1	6	13	20
1-2			3	32	37	72
2-3			4	26	27	57
3-4		1	16	16	11	44
4-5		2	11	2	3	18
5-6	1	3	6	1	1	12
6-7				1		1
7-8					1	1
8-9						
9-10						
10 이상						
총계	1	6	41	84	93	225

라. 성읍민속마을

성읍민속마을의 평균도로폭은 4.19m이며, 경사도는 3.37%로서 평지형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마을길 길이는 11~80m에 분포하고 있으며, 21~30m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평지형인 하회마을과 비슷한 수치다.

어귀길과 안길-순환로 120m 이상의 긴 길이 보이며, 안길-관통로 중에도 관광을 위해 길을 확장한 영향으로 120m 이상의 긴 거리를 보이는 길도 관찰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안길-관통로는 트인 골목길에서와 함께 다양한 길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막힌 골목길은 11~20m 5개소, 21~30m 6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림 20. 성읍민속마을 길의 물리적 특성 분석도

표 29. 성읍마을 길의 길이 분포

위계별 길이(m)	어귀길	안길- 순환로	안길- 관통로	트인 골목길	막힌 골목길	개소
0-10					6	2
11-20			3	8	5	14
21-30			7	5	2	14
31-40		4	4	5	1	14
41-50			2	2	3	13
51-60			6	3		9
61-70		2	4	6		12
71-80		2	2	4	1	9
81-90			1	1		2
91-100		1		1		2
101-110		1		1		2
111-120			1	1		2
121 이상	1	3	1			5
총계	1	13	31	37	18	1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0. 성읍마을 길의 폭 분포

위계별 폭(m)	어귀길	안길- 순환로	안길- 관통로	트인 골목길	막힌 골목길	개소
0-1				2		2
1-2			1	11	2	6
2-3			3	8	3	13
3-4		2	1	9		12
4-5		1	1	6		8
5-6	2	3	1	2		15
6-7	1	1	2			6
7-8		2	1			3
8-9		2	1			3
9-10				2		2
10 이상				1		1
총계	3	11	11	41	5	71

이러한 길이가 나타나는 것을 표 18에서 위계별, 기능별로 마을길을 분석한 것도 비교하여 고찰하여보면, 어귀길과 안길-순환로는 대부분 이동과 행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길이므로 길이가 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분포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을길 폭의 대부분은 1~6m에 분포(56개소, 78.8%)하고 있으며, 2~3m 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광개발을 위해 길을 확장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어귀길은 5~7m, 안길-순환로는 5~6m, 안길-관통로는 2~3m, 트인 골목길은 1~2m, 막힌 골목길은 2~3m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마을길의 폭에 따라 그 위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공공마당의 기능과 구성분류

(1)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류

공공마당의 기능은 의식, 생산, 휴식, 유희로 분류할 수 있으며, 면적규모가 큰 마당일수록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마을별로 기능에 따라 분류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하회마을

하회마을은 다른 대상마을에 비해 공공마당이 비교적 적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마을의 임지가 하천에 둘러싸여 주위에 형성된 모래사장과 비보숲이 큰 면적을 차지하면서 공공마당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31. 하회마을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류

대상마을	장소별	면적 (m ²)	기능별 분류			
			의식	생산	휴식	유희
하회마을	삼신당	392.49	○			
	빈연정사	916.00			○	○
	비보숲	10,375.46	○		○	○
	양진당	157.68		○		
	충효당	1,314.31		○		
	북촌택	410.24		○		
계		13,566.18	2	3	2	2

이에 하회마을의 기능에 따른 분류를 하여보면 표 31과 같은데, 하회마을의 의식 기능이 나타나는 공공마당으로는 삼신당과 비보숲에서 마을의 제례를 통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연정사와 비보숲에서 휴식과 유희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회마을은 고립된 지형조건으로 인해 경작지와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어 반가의 바깥마당을 중심으로 생산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또한 하회마을에서는 비보숲의 커다란 면적을 통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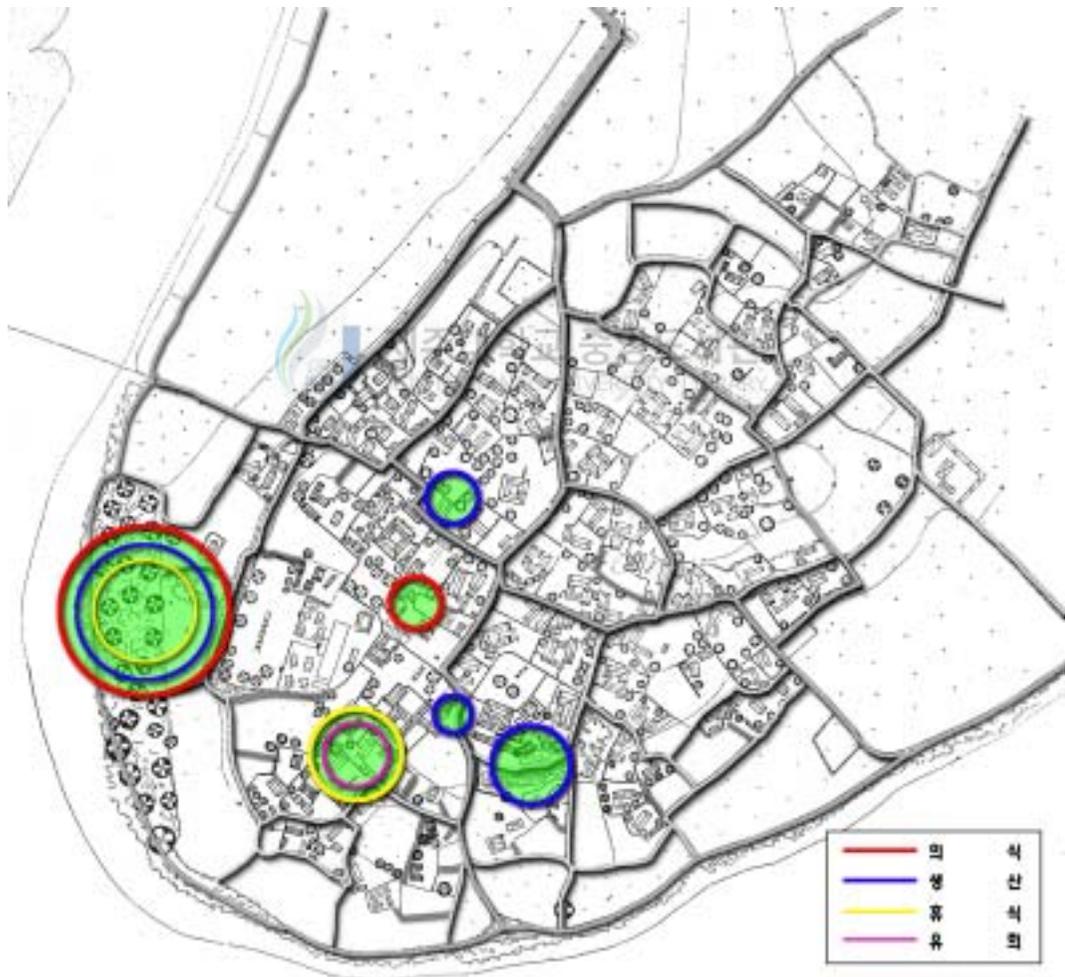


그림 21. 하회마을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석도

나. 외암리마을

외암리마을에서의 공공마당은 반가를 중심으로 한 바깥마당과 방아를 중심으로 한 생산기능의 공공마당이 많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마을의 전반에 걸쳐 의식기능을 가지는 공공마당이 분포되어 있다.

외암리 마을에서는 비교적 적은 면적의 마을에 많은 수의 공공마당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하회마을이 충분한 자연지형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마을 내부에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필요로 하였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또한 휴식과 유희의 기능을 하는 공간은 나무와 정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있음을 볼 수가 있다.

표 32. 외암리마을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류

대상마을	장소별	면적 (㎡)	기능별 분류			
			의식	생산	휴식	유희
외암리마을	승덕비	232.39	○			
	장려각	42.65	○			
	반석정	15.65			○	○
	물레방아	20.24		○		
	느티나무	28.87	○			
	디딜방아	245.22		○		
	연자방아	83.39		○		
	모정	14.56			○	○
	정자나무	22.06	○		○	
	외암사당	411.76	○			
	감찰덕	160.83		○		
	신창덕	432.73		○		
	영암덕	232.36		○		
	참관덕 가	218.84		○		
	참관덕 나	481.81		○		
송화덕	195.00		○			
계	2,838.36	5	9	3	2	



그림 22. 외암리마을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석도

다. 양동마을

양동마을은 입지가 산지형에 있어 평지의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마을 전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공마당의 형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손씨와 이씨 가문의 경쟁으로 인해 형성된 정자를 중심으로 공공마당이 형성되어, 다른 대상마을에 서와 같은 담장 밖의 외부공간이 아닌 담장 안의 외부공간에서 공공마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양동마을의 공공마당은 정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휴식과 유희 기능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마을주변의 인강평야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작지와 주거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생산의 기능을 하는 공공마당은 비교적 적게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의식 기능을 하는 공공마당의 형성은 마을 중심부와 상촌, 하촌에 형성되어 마을 전체에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표 33. 양동마을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류

대상마을	장소별	면적 (㎡)	기능별 분류			
			의식	생산	휴식	유희
양동마을	은행나무-가	324.12	○		○	○
	당목	450.69	○		○	
	은행나무-나	284.28	○		○	
	우물터	99.49		○		
	방아터	21.23		○		
	안락정	421.13			○	○
	관가정	1,420.54	○		○	○
	손동만가옥	2,162.87		○		
	낙선당	1,238.28				○
	수은정	371.24			○	○
	내속정	326.23			○	○
	무침당	665.45				○
	경산서원	715.41	○			○
	향단	224.80			○	○
	설천정	944.57			○	○
	양줄정	684.63			○	○
	수줄당	2,346.86				○
	심수정	1,164.19			○	○
	이향정	1,484.66			○	○
	강학당	284.55			○	
동호정	163.91			○	○	
계	15,799.13	5	3	14	15	

라. 성읍마을

성읍마을은 다른 대상마을에 비해 공공마당이 비교적 적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마을의 형성 자체가 왜구의 침탈을 피해 중산간으로 이동한 후 성곽을 두른 후 그안에서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에 성읍마을의 기능에 따른 분류를 하여보면 표 34와 같은데, 하회마을의 의식



그림 23. 양동마을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석도

기능이 나타나는 공공마당으로는 마을의 출입구인 동문, 서문, 남문에서와 정의향교에서의 마을 제례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곽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생활을 많이 영위했던 탓인지 마을 내부에 육지부의 다른 마을에 비해 휴식 및 유희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마당이 다수 관찰되었다.

성읍마을은 성곽으로 인하여 고립된 생활환경으로 인해 의식과 휴식 및 유희는 성곽 내부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농업 생산은 성곽 외부에서도 농업이 가능한 곳에서는 이루어진 듯 생산활동을 위한 공공마당은 성곽 외부에서도 원님물통과 빌

레동산, 공동 창고 3개소가 관찰되고 있다.

표 34. 성읍마을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류

대상마을	장소별	면적 (㎡)	기능별 분류			
			의식	생산	휴식	유희
성읍마을	남문	665.45	○			○
	원님물통	284.55		○	○	
	노다리 방죽	163.91			○	○
	동문	665.45	○			○
	서문	684.63	○			○
	정의향교	1,164.19	○		○	
	객사	1,484.66		○	○	○
	개동산	224.80			○	
	빌레동산	284.55		○	○	
	공동창고	630.45		○		
계	6,252.64	4	4	6	5	



그림 24. 성읍마을 공공마당의 기능별 분석도

(2) 공공마당의 구성조건

가. 하회마을

하회마을에서 공공마당의 구성조건을 보면 공간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공공마당을 제한하는 요소로서는 담과 건물이 가장 많은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하회마을의 공공마당이 주로 주거지내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마당은 대부분이 평탄지에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시각적 요소로서 일조권이 중요한 구성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마당을 수식하는 구성요소는 수목과 정자가 있다.

표 35. 하회마을 공공마당의 구성조건별 분류

대상 마을	장소별	면적 (㎡)	구성조건별 분류														
			제한적 요소					단면 요소		시간적 요소		수식적 요소					
			건물	담	길	내	경작지	숲	평탄지	경사지	일조권	계절 변화	수목	정자	숫대	장승	
하회 마을	삼신당	392.49		○						○			○	○			
	빈연정사	916.00		○						○		○			○		
	비보숲	10,375.46			○	○				○		○	○				
	양진당	157.68	○	○						○		○					
	충효당	1,314.31	○	○						○		○					
	북촌덕	410.24	○	○						○		○					
계	13,566.18	3	5	1	1	0	1	5	1	4	2	2	1	0	0		

나. 외암리마을

외암리마을의 공공마당은 마을내부에서 형성되어 건물과 담의 수직적 요소에 의해서 마당이 제한되어지고 길의 교차점이나 반가의 바깥마당에 공공마당이 형성되어 길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마을을 둘러싸고 도는 내와 마을의 진입부에 있는 숲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 공공마당의 단면요소는 하회마을과 같이 평탄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시간적 요소는 일조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암리마을의 공공마당의 수식적 요소는 수목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하회마을과는 달리 장승과 숫대에 의해 수식적 요소가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6. 외암리마을 공공마당의 구성조건별 분류

대상 마을	장소별	면적 (㎡)	구성조건별 분류													
			제한적 요소						단면 요소		시간적 요소		수식적 요소			
			건물	담	길	내	경작지	숲	평탄지	경사지	일조권	계절 변화	수목	정자	숫대	장승
외 암 리 마 울	승덕비	232.39			○				○		○				○	○
	장려각	42.65			○				○					○		
	반석정	15.65				○		○		○		○	○			
	물레방아	20.24			○	○		○		○			○			
	느티나무	28.87	○	○	○				○			○	○			
	디딜방아	245.22	○	○	○				○		○					
	연자방아	83.39	○	○	○				○		○					
	모정	14.56			○	○		○	○			○	○	○		
	정자나무	22.06			○	○		○	○			○	○			
	외암사당	411.76	○	○	○				○		○					
	감찰택	160.83	○	○	○				○		○					
	신창택	432.73	○	○	○				○		○					
	영암택	232.36	○	○	○				○		○					
	참관택 가	218.84	○	○	○				○		○					
참관택 나	481.81	○	○	○				○		○						
송화택	195.00	○	○	○				○		○						
계	2,838.36	10	10	15	4	0	4	14	2	10	4	5	3	1	1	

다. 양동마을

양동마을의 공공마당은 정자를 중심으로 형성하여 공간을 제한하는 요소로서는 담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식의 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마당에서는 길에 의해 제한적 요소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면요소는 양동마을이 산지형의 입지를 가지고 있어 평탄지보다는 경사지에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시간적 요소는 다른 대상마을과 같이 일조권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식적 요소로는 정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37. 양동마을 공공마당의 구성조건별 분류

대상 마을	장소별	면적 (㎡)	구성조건별 분류														
			제한적 요소						단면 요소		시간적 요소		수식적 요소				
			건물	담	길	내	경작지	숲	평탄지	경사지	일조권	계절 변화	수목	정자	숫대	장승	
양동 마을	은행나무-가	324.12			○					○	○	○	○				
	당목	450.69			○				○		○	○	○				
	은행나무-나	284.28			○					○	○	○	○				
	우물터	99.49		○	○				○		○						
	방아터	21.23				○	○		○		○						
	안락정	421.13		○						○	○				○		
	관가정	1,420.54		○						○	○				○		
	손동만가옥	2,162.87		○						○	○						
	낙선당	1,238.28						○		○		○					
	수은정	371.24		○						○	○						
	내숙정	326.23		○						○	○				○		
	무침당	665.45		○						○	○						
	경산서원	715.41		○					○	○		○					
	향단	224.80		○							○						
	설천정	944.57		○						○	○				○		
	양졸정	684.63		○						○	○				○		
	수졸당	2,346.86		○						○	○						
	심수정	1,164.19		○				○		○	○				○		
	이향정	1,484.66		○						○	○				○		
	강학당	284.55						○		○	○						
동호정	163.91		○						○	○				○			
계	15,799.13	0	15	4	1	1	4	4	17	19	5	3	8	0	0		

라. 성읍마을

성읍마을에서 공공마당의 구성조건을 보면 성곽으로 외부를 둘러싸기 때문인지 내부의 공공마당에서 공간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마당을 제한하는 요소로서는 대부분 자연적 조건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다만 동문, 서문, 남문 등은 성곽과 연계된

공공마당이어서 건물과 담으로 마당이 한정되어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또한, 성읍마을의 공공마당은 대부분이 평탄지에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시각적 요소로서 평지이며 제한요소가 별로 없는 탓에 일조권과 계절의 변화 모두 중요한 구성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식하는 구성요소는 다른 마을에 비해 그다지 관찰되지 않는다.

표 38. 성읍마을 공공마당의 구성조건별 분류

대상 마을	장소별	면적 (㎡)	구성조건별 분류													
			제한적 요소						단면 요소		시간적 요소		수식적 요소			
			건물	담	길	내	경작지	숲	평탄지	경사지	일조권	계절 변화	수목	정자	숫대	장승
성읍 마을	남문	665.45	○	○					○			○				
	원님물통	284.55		○	○				○		○					
	노다리방죽	163.91			○	○		○	○			○				
	동문	665.45	○	○					○		○					
	서문	684.63	○	○					○		○					
	정의향교	1,164.19	○				○	○	○		○		○	○		
	객사	1,484.66	○						○			○				
	개동산	224.80					○	○		○		○				
	빌레동산	284.55					○			○	○					
	공동창고	630.45	○						○		○					
계	6,252.64	7	4	3	1	3	3	8	2	6	4	1	1	0	0	

(3) 공동마을의 물리적 유형

가. 하회마을

하회마을의 공공마당은 방형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비기하학적인 형태를 지니는 공공마당은 비교적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다.

공공마당이 주거지내에서 형성되어 공간위요의 평면적 조건이 인위적이며, 건물과 담 등의 수식적 요소에 의해 위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 하회마을 공공마당의 물리적 유형별 분류

대상 마을	장소별	면적 (㎡)	유형별 분류										
			평면형태				공간위요의 평면조건			공간위요의 단면조건			
			기하학적				비기하 학적	인위적	자연적	혼합형	수직적 요소	지형적 요소	토지 이용요소
			방형	원형	삼각형	다각형							
하회 마을	삼신당	392.49	○							○	○		
	빈연정사	916.00				○		○			○		
	비보숲	10,375.46					○		○				○
	양진당	157.68	○					○			○		
	충효당	1,314.31				○		○			○		
	북촌택	410.24	○					○			○		
계	13,566.18	3	0	0	2	1	4	1	1	5	0	1	
상세 이미지	삼신당	빈연정사		비보숲		양진당		충효당		북촌택			
													

나. 외암리마을

외암리마을의 공공마당은 비교적 다양한 평면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그중에서 방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하회마을과 같이 건물과 담등의 수직적 요소에 의한 공간의 위요가 형성되어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보이며, 인위적인 요소와 자연적 요소가 결합된 혼합형이 그 다음으로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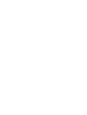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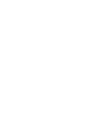
다. 양동마을

양동마을에서는 자연적인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로서 비기하학적인 평면형태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간의 위요도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어지고 있으며, 지형적 요소에 의해 공간의 위요를 형성하고 있다.

표 40. 외암리마을 공공마당의 물리적 유형별 분류

대상 마을	장소별	면적 (㎡)	유형별 분류										
			평면형태				비기하 학적	공간위요의 평면조건			공간위요의 단면조건		
			기하학적					인위적	자연적	혼합형	수직적 요소	지형적 요소	토지 이용요소
			방형	원형	삼각형	다각형							
외 암 리 마 울	승덕비	232.39			○					○			
	장려각	42.65	○					○			○		
	반석정	15.65				○				○		○	
	물레방아	20.24			○					○		○	
	느티나무	28.87				○				○	○		
	디딜방아	245.22	○					○			○		
	연자방아	83.39	○					○			○		
	모정	14.56	○							○		○	
	정자나무	22.06				○		○				○	
	외암사당	411.76	○					○			○		
	감찰택	160.83			○			○			○		
	신창택	432.73			○			○			○		
	영암택	232.36	○					○			○		
	참판택 가	218.84	○					○			○		
참판택 나	481.81					○	○			○			
송화택	195.00	○					○			○			
계	2,838.36	8	0	4	1	3	10	1	5	11	4	0	
상 세 이 미 지	승덕비	장려각		반석정		물레방아		느티나무					
													
	디딜방아	연자방아		모정		정자나무		외암사당		감찰택			
													
	신창택	영암택		참판택 가		참판택 나		송화택					
													

표 41. 양동마을 공공마당의 물리적 유형별 분류

대상 마을	장소별	면적 (㎡)	유형별 분류											
			평면형태				공간위요의 평면조건			공간위요의 단면조건				
			기하학적				비기하 학적	인위적	자연적	혼합형	수직적 요소	지형적 요소	토지 이용 요소	
			방형	원형	삼각형	다각형								
양동 마을	은행나무-가	324.12					○		○			○		
	당목	450.69					○		○				○	
	은행나무-나	284.28					○		○			○		
	우물터	99.49			○			○					○	
	방아터	21.23	○						○				○	
	안락정	421.13			○				○			○		
	관가정	1,420.54				○			○			○		
	손동만가옥	2,162.87				○			○			○		
	낙선당	1,238.28					○		○			○		
	수은정	371.24	○						○			○		
	내속정	326.23	○						○			○		
	무침당	665.45	○						○			○		
	경산서원	715.41					○		○			○		
	향단	224.80	○						○		○			
	설천정	944.57	○						○			○		
	양졸정	684.63					○		○			○		
	수졸당	2,346.86					○	○				○		
	심수정	1,164.19					○		○			○		
	이향정	1,484.66					○	○				○		
강학당	284.55	○						○			○			
동호정	163.91	○						○			○			
계	15,799.13	8	0	2	2	9	6	15	0	1	17	3		
상세 이미지	은행나무-가	당목	은행나무-나	우물터	방아터	안락정	관가정							
	손동만 가옥	낙선당	수은정	내속정	무침당	경산서원	향단							
	설천정	양졸정	수졸당	심수정	이향정	강학당	동호정							
														

라. 성읍마을

성읍마을의 공공마당은 사각형인 다각형과 자연적 요소로 구성된 마당에서보이는 비기하학적인 형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성곽의 출입문과 연계된 공공마당은 공간위요의 평면적 조건이 인위적이며, 건물과 담 등의 수직적 요소에 의해 위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원님물통, 빌레동산 등 자연적 요소와 더불어 나타나는 공공마당의 물리적 유형은 자연적이며 수직적 요소 또한 지형 혹은 토지의 요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양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42. 성읍민속마을 공공마당의 물리적 유형별 분류

대상 마을	장소별	면적 (m ²)	유형별 분류										
			평면형태				공간위요의 평면조건			공간위요의 단면조건			
			기하학적				비기하 학적	인위적	자연적	혼합형	수직적 요소	지형적 요소	토지 이용요소
			방형	원형	삼각형	다각형							
성 읍 마 울	남문	665.45				○		○			○		
	원님물통	284.55				○				○			○
	노다리방죽	163.91				○				○			○
	동문	665.45				○		○			○		
	서문	684.63				○		○			○		
	정의향교	1,164.19				○		○			○		
	객사	1,484.66				○		○			○		
	개동산	224.80				○			○			○	
	빌레동산	284.55				○			○			○	
	공동창고	630.45				○					○		○
계	6,252.64	0	0	0	6	4	5	2	3	5	2	3	
상세 이미지	남문	원님물통	노다리방죽	동문	서문								
	정의향교	객사	개동산	빌레동산	공동창고								
													
													

4. 분석 결과 비교 및 고찰

1) 대상마을 간의 구조적 특성 비교

본 연구는 전통마을의 마을길과 공공마당이 공동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데 있어 입지적 특성이 상이한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고찰된 각 마을의 구조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하회마을

하회마을은 평지형의 마을로서 풍수지리적으로는 태극형인 연화부수형의 길지이다. 하회마을은 가운데가 가장 높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나지막해지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가운데자리에는 양반가가 자리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서민층의 주택이 위치하는 지형차에 따른 신분차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을의 입지가 평지형에 위치하며 또한 안산의 영향으로 주택의 향은 배산임수를 이루지 않고 경관 등 주변 자연환경과의 연계에 의해 향을 결정하여 다양한 배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마을길의 전체형태는 방사환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접촉의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안길-관통로에 의해 북촌과 남촌으로 분리되어 진다.

마을의 공공마당은 대상마을 중에서 가장 적은 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마을 주변이 수려한 경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낙동강 줄기를 따라 형성된 하천변과 비보숲이 공공마당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공공마당은 안길-순환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생산의 기능을 하는 공공마당은 안길-관통로와 연결되어 있다.

(2) 외암리마을

구릉지형의 외암리마을은 풍수지리적으로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태를 띄고 있는 마을로서 설화산의 서남향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주택향의 대부분은 서향이나 남향에 치중하고 있으며, 마당의 배치도 남향과 남서향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조선시대 후기에 발전했던 다른 대상마을과는 달리 일제시대 때 발달된 외암리 마을은 지형에 따른 신분차별의 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외암리 마을의 마을길은 구릉지형의 특성에 따라 지형 순응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집합단위형태는 나뭇가지형으로 발달되어 있다.

마을의 외부공간은 대상마을 중에서 가장 발달되었으며 어귀길과 안길-순환로에 접한 공공마당은 휴식과 유희의 기능이 발달하였고, 트인 골목길에 접한 공공마당은 생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마당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안길-관통로와 접한 공공마당은 의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암리마을은 하회마을과는 달리 마을외부에 커다란 공용지가 없어 마을 내부에서 마을주민들이 공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마을길과 접한 길폭의 변화를 통하여 공공마당으로 활용한 것 역시 관찰된다.

(3) 양동마을

양동마을은 산지형의 대지에 입지한 마을로서 勿자형의 풍수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갈곡, 분통골, 물봉, 안골, 장태골, 두동골로 형성된 양동마을은 손씨가문과 이씨가문에 의해 발전하였는데, 계곡 사이로 형성된 안길-관통로에 의해 상촌과 하촌, 북촌과 남촌으로 나누고 있다.

길의 단위부분 형태로 볼 때 대상마을 중에서 곡선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의 형태는 지형 순응 형태를 띠고 있다.

양동마을은 산지형에 위치하여 마을의 공공마당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두 가문의 경쟁에 의해 건립된 정자를 중심으로 주민간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전체행사는 마당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길과 마당은 트인 골목길과 안길-관통로에 접하고 있으며, 휴식과 유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자를 중심으로 공공마당이 발전하였다.

(라) 성읍마을

성읍마을은 평지형의 마을로서 태풍의 피해 및 왜구의 침입으로 불편함을 겪던 고성리의 정의성이 성읍으로 현청을 옮기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따라서 생산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성안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졌으며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이 흐르고 이어 중산간 지역 중에서는 비교적 물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이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관광개발을 빌미로 넓은 차도로 길이 포장되고 여러 민가들이 상업용으로 개조되면서 전통마을의 생동감을 많이 잃어버린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방사환상형의 전체 마을길 형태는 유지되는 셈이지만 세부 길의 특성은 많이 훼손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과 문헌을 통해 조사분석한 성읍마을의 길은 사회적 접촉의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이 발달되어 있으며 성곽의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안길-관통로에 의해 마을은 분리되어 진다. 이러한 분리 기능은 원래 마을길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긴 하나 차도로 포장되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마을의 공공마당은 대상마을 중에서 가장 적은 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마을의 여러 기능이 읍성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와 연계하여 읍성과 관련된 공공마당은 인위적 요소 및 수직적 요소로 한정되며 의식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반면에, 다른 공공마당은 자연적 요소로 제한되며 대부분 휴식 및 유희 기능을 수행한다.

2) 마을길과 공공마당의 물리적 특성

자연관에 근거한 공동체 의식 형성에 중요한 물리적 요소로 작용한 길과 공공마당의 물리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길과 공공마당의 기능조건과 구성 조건 및 물리적 조건에 의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대상마을간 마을길의 물리적 특성 비교

마을길의 위계에 따른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어귀길과 안길-순환로는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는데, 120m 이상의 길이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 43. 각 마을길의 물리적 특성 비교 분석

마을별 구분	하회마을					외암리마을					양동마을					성읍민속마을					
	어귀길	안길-순환로	안길-관동로	트인 골목길	막힌 골목길	어귀길	안길-순환로	안길-관동로	트인 골목길	막힌 골목길	어귀길	안길-순환로	안길-관동로	트인 골목길	막힌 골목길	어귀길	안길-순환로	안길-관동로	트인 골목길	막힌 골목길	
위계 및 기능 조건	전체구성비	4.37	17.53	29.60	40.55	7.75	1.91	24.17	15.74	51.67	6.51	1.96	7.32	25.77	46.57	18.38	3.75	17.44	28.72	39.33	10.76
	이동		17.53	10.02	28.13	7.10		24.17		4.01	6.51		7.32	4.36	26.02	18.38		17.44	4.32	13.94	10.76
	분리			7.66					11.96					12.21					14.22		
	접촉			12.11	12.39					47.66				3.22	20.54				5.11	25.39	
	행사	4.37				6.65	1.91		3.76			1.96	5.99			3.75	5.07				
변환 방법	분기점	세갈래	1	10	7	6		2	10	5	4		1	3	11	12		2	12	7	7
		네갈래								1				1	9	10					
	교차점	세갈래	1		17	20				1	7			11	12		1		16	17	
		네갈래			5	1				3	4			8	9				4	1	
물리적 조건	길이	120	120	11-20	21-30	11-20	31-40	41-50	110	31-40	21-30	120	120	21-30	31-40	0-10	120	31-40	31-40	21-30	0-10
	폭	6-7	5-6	4-5	1-2	2-3	5-6	3-4	6-7	5-6	1-2	5-6	5-6	3-4	1-2	1-2	6-7	5-6	4-5	1-2	2-3



고 있으며, 이동의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귀 길은 행상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성읍마을의 경우 안길-순환로가 31~40m 단위로 짧은 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관광객을 위한 포장도로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또한 안길-관통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나 분리 기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하회마을만이 분리 기능보다는 사회적 접촉의 기능을 보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회마을의 안길-관통로가 다른 마을과는 달리 마을을 직선으로 가르지 않고, 방사형로 관통로이나 내부의 트인-골목길과 유사한 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즉 이러한 현상에서 직선으로 곧은 길보다는 휘어져 있는 길에서 보다 많은 사회적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인 골목길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안길-관통로와 비슷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길들은 기능적인 면에서 사회적 접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길이와 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트인 골목길은 사회적 접촉 외에 이동의 기능도 나타내고 있다.

분기점과 교차점을 살펴보면 안길-순환로와 트인 골목길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데 이 두 길의 기능을 보면 두 길 다 사회적 접촉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다 많은 사회적 접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변환점이 많은 트인 골목길 형태의 길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폭에 관하여는 각기 상반된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길의 위계에 따라 도로 폭이 구분 되는 것이 원인이며 성읍마을의 경우는 이외에도 관광을 위한 도로포장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마을길은 위계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한다는 것과, 마을길의 위치에 따라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 대상마을간 공공마당의 물리적 특성 비교

공공마당은 지형적 변화에 따라 그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의식기능의 공공마당은 마을의 입구와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생산기능의 공공마당은 마을내부의 반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마을길 폭의 변화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다만 성읍마을의 경우 읍성 내부에 여러 기능이 집중하여 있어 공간의 부족으로 농업생산 활동이 가능한 성 외부의 지역에서도 생산기

표 44. 각 마을 공공마당의 물리적 특성 비교 분석

구분		하회마을	외암리마을	양동마을	성읍마을			
기능조건	의식	2	5	5	4			
	생산	3	9	3	4			
	휴식	2	3	14	6			
	유희	2	2	15	5			
구성조건	제한적 요소	건물	3	10		7		
		담	5	10	15	4		
		길	1	15	4	3		
		내	1	4	1	1		
		경작지			1	3		
	단면요소	숲	1	4		3		
		평탄지	5	14	4	8		
	시간적 요소	경사지	1	2	17	2		
		일조권	4	10	19	6		
	수직적 요소	계절변화	2	4	5	4		
		수목	2	5	3	1		
		정자	1	3	8	1		
숫대			1					
물리적 유형조건	평면 형태	기하학적	장승	1				
			방형	3	8	8		
		비기하학적	원형					
			삼각형		4	2		
	공간위요 평면조건	공간위요 평면조건	다각형	2	1	2	6	
			비기하학적	1	3	9	4	
			인위적	4	10	6	5	
		공간위요 단면조건	자연적	1	1	15	2	
			혼합형	1	5		3	
			수직적요소	5	11	1	5	
공간위요 단면조건	지형적요소		4	17	2			
	토지이용적요소	1		3	3			
공공마당 공간구성 분석도								
	하회마을		외암리마을		양동마을		성읍마을	

능의 공공마당이 형성되었음이 관찰되었다.

휴식과 유희기능을 이루는 공공마당은 마을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자와 수목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공공마당은 대부분 건물과 담에 의한 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지형적 차이에 의해 제한되어지며 평면형태는 방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위적 요소와 수직적 요소에 의해 공간이 위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공공마당의 구성에 있어 성읍마을은 다른 정통마을과 조금은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읍성에 안에 모든 기능을 집중하려한 결과로 사료되어 진다. 즉 성곽의 출입문과 연계된 공공마당은 공간위요의 평면적 조건이 인위적이며, 건물과 담 등의 수직적 요소에 의해 위요되는 반면에, 자연적 요소와 더불어 나타나는 공공마당의 물리적 유형은 자연적이며 수직적 요소 또한 지형 혹은 토지의 요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전통마을에서 마을길과 공공마당을 살펴본 결과 전통마을의 길과 마당은 사회적 접촉과 행사의 기능과 의식, 생산, 휴식, 유희의 기능을 가짐으로서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은 공공마당과 접하여 있으며, 마을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거주민의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공공마당에서는 마을 전체 의식행사를 위하여 마을 전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을의 입구 혹은 마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어귀길이나 안길-관통로와 안길-순환로에 접하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의 평탄지에 위치하고 장승이나 솟대, 고목 등의 수직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생산기능을 통하여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공공마당은 마을길 폭의 변화가 있는 트인 골목길과 접하여 있고, 대부분 건물과 담의 인위적이며 수직적인 요소에 의해 위요되고 있다. 휴식과 유희의 공공마당은 마을의 외곽에 위치하여 자연적 요소에 의해 위요되어 있으며, 마을의 순환로에 접하고 있다.

입지적 특성에 의해 평지의 확보가 어려운 마을의 경우는 건축적 요소인 정자에 의해 공공 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정자는 자연적 요소에 의해 위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I. 결 론

경제성장 위주의 도시개발은 현대 도시에서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라는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동체형성을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과 및 커뮤니티 형성의 장소로 활용되는 길과 집점 및 중심으로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당이라는 공공공간의 적극적 수용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정지역에서 같은 씨족이 모여, 자연스럽게 공동체의식을 형성한 전통마을과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된 읍성마을에서 공동체의식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길과 공공마당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 현대도시내 주거환경의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을 더불어 생각하는 유기체적 자연관의 회복과 공동체성의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그 결과로 마을길은 크게 어귀길과 안길, 골목길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분하면 어귀길, 안길-순환로, 안길-관통로, 트인 골목길, 막힌 골목길로 나눌 수가 있었다.

이러한 길의 분류는 도로폭과 위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길의 위계가 클수록 이동의 기능만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은 공간을 분리, 연결하고 사회적 접촉의 장으로 활용되어 주민들의 공동체형성의 장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마을길과 공공마당의 물리적 특성을 보면, 이동 기능의 길은 120m 이상, 사회적 접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길은 11~40m의 길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길의 집합단위형태는 나뭇가지형과 방사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방사환상형의 마을에서 가장 다양한 길의 기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공공마당은 자연지형에 따라 형성위치를 달리하며 마을의 입지에 따라 구성조건과 물리적 유형조건의 특성을 달리하였다.

의식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마당은 마을의 입구와 내부에 위치하여 마을전체에 분포, 어귀길과 안길-관통로에 접하고 있었다. 생산기능의 공공마당은 마을내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마을길 폭의 변화에 의해 형성, 대부분 트인 골목길과 접하고 있

었다.

휴식과 유희 기능의 공공마당은 마을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적 요소에 의해 수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유기체적 자연관 및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해 현대도시 내 주거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독주거단지에서 골목길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으로, 순환하는 도로와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구분하도록 한다. 순환하는 도로는 차량이동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관통하는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제한한다. 관통도로에는 차량진입을 금지하여 주민들이 주거지까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활동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들간의 사회적 접촉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비상용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의 폭을 유지하며, 일정한 길이마다 변환점이나 교차점을 두어 보행의 흥미로움을 도모하고, 보행에 자유로운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셋째, 주거지내 길의 교차점이나 넓어지는 길의 주변에는 공공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간의 접촉기회를 마련하고, 마을 전체행사를 주관하여 마을 주민들간의 공동체성을 도모하고, 자연스런 공동유대감을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공동체 의식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마을길과 공공마당은 집점과 중심으로 역할하는 공공마당과 통과와 장소로 기능을 하는 마을길에 의해서 형성되며, 이러한 길로는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이 해당된다. 즉 방사환상형의 마을의 형태에 안길-관통로와 트인 골목길의 변환지점에 형성되는 공공마당을 잘 활용한다면 전통적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 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더불어 생각하는 유기체적 자연관의 회복도 가능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건축에서의 근대적 모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길과 공공마당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전통마을의 길과 마당에서 공동체의 형성요소를 찾았으며 이를 통해 동양의 전통에 기반한 유기체적 자연관을 회복하려 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중소규모의 독립주거단지 계획시 커뮤니티 형성에 대하여 반영할 수 있는 기본방침으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주거단지 내의 외부공간 설계시

에 동선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길과 마당이 이동과 집합기능만이 아니라 하나의 장소로서 인식되어지는 인식의 전환과 그에 대한 배려와 제도적 측면의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된 전통마을은 모든 마을의 특성을 대변할 수가 없는 한계성이 있다. 앞으로도 더많은 전통마을의 연구가 수반될 것을 기대하며, 마을 주민들의 인식조사와 직접 관찰을 통한 검증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인호, 한필원, 주거의 문화적 의미, 세진사, 2000
- 계기석, 천현숙,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연구, 국토연구원, 2000
- 김봉렬, 시대를 담는 그릇, 이상건축, 1999
- 김용직, 하회마을, 열화당, 1981
- 김학범, 장동주, 마을숲-한국전통부락의 당숲과 수구막이, 열화당, 1994
- 문원공 회제선생 송모사업회, 옥산서원과 양동마을, 우리출판사, 1987
- 이영석, 주거환경설계, 신학사, 1984
- 임재해, 안동하회마을, 대원사, 1992
- 임재해, 안동마을 하회여행, 밀알, 1994
- 장기인, 양동마을 민가들, 건축문화, 1982
- 정재훈, 한국전통의 원, 도서출판 조경, 1996
- 홍경희, 촌락지리학, 법문사, 1985

2. 외국문헌

- Camillo Sitte, 손세욱, 구시온 역, 도시·건축·미학, 2000
- C. N. Schulz, 김광현 역,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1991
- C. N. Schulz, 이재훈 역, 거주의 개념, 태림문화사, 1992
- Nisijawa T., 이범재, 김병운 역, 외부환경디자인, 기문당, 1984

Yoshinobu Ashihara, 김정동 역, 건축의 외부공간, 기문당, 1984

Yoshinobu Ashihara, 강건희 역, 외부공간의 미학, 기문당, 1992

Yoshinobu Ashihara, 정무웅 역, 속 외부공간의 미학, 기문당, 1993

3. 학위논문

강선중, 금계포란형 국면의 마을공간구성 방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고일석, 영남지방 농촌마을의 길과 장소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공종렬, 한국전통건축의 공간해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구창서, Community 행정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권순복, 도시공동사회의 형성과 발전방향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김남미, 외암리 민속마을의 취락경관과 외부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김보라, 공공장소로서의 길에 대한 지리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수진, 전통조경요소의 현대적 적용과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김운영, 풍수지리의 시각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영민, 양동마을 기와집의 공간 구성,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종재, 도시민의 정주·커뮤니티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김진성, 조경학적 측면에서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항집, 전통마을의 형성요인과 그 패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나한범, 한국 전통마을의 장소성과 그 공간구성 체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민승현, 전통건축 공간구성의 연속체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박서호, 사회와 공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박수국, 전통마을 공간의 동선구조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신상섭, 전통주거의 외부경관 구성 체계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윤보숙, 전통적 마을길과 도시 골목길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인희, 전통사상에 의한 건축공간의 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장영우, 공간구문론을 사용한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조 분석,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한용, 전이공간으로서의 '길'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최병돈,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4. 국내학회지

- 서기영, 임상인, 전통주거지에 내재된 지속가능한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9호, 2004
- 최 율, 방촌마을의 생태주거단지 계획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ol.2, no.1, 2002
- 이정민, 홍의택, 임중훈, 공간디자인에 있어 에코디자인(eco-design)적 접근의 유형과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4권 1호, 2005

- 한필원, 전통마을의 환경생태학적 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7호, 1996
- 김윤하, 안계복, 평지 전통마을 갈림길의 중심각과 곡률반경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8권 2호, 2000
- 김진성, 정동호, 조경학적 측면에서 한국전통마을의 옥외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1권 1호, 1993
- 신상섭, 조상묵, 신병철, 전통주택 외부공간의 시각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2권 7호, 1988
- 신상섭, 전통주택 외부공간의 조영원리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6권 1호, 1998

5. 보고서

- 제주도, 제주의 민속 4(의, 식, 주 생활), 1996
- 남제주군,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1994
-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육성기본계획, 1980
- 제주도, 제주건축의 향토성 개념정립과 보급확대방안 연구, 1987
- 문화재관리국, 양동 및 하회마을, 1978
- 경상북도, 양동마을 조사보고서, 1999
- 경상북도, 양동마을 조사보고서, 1979
- 경상북도, 하회마을 조사보고서, 1979
- 경주군, 양동민속마을 정비계획 조사보고서, 1994
- 문화재관리국, 안동하회 민속마을 가옥 유형도, 1990
- 문화재관리국, 안동하회 민속마을 보존관리방안 조사보고서, 1989
- 문화재관리국, 하회 민속마을 조사보고서, 1983

문화체육부, 전통문화마을 보존·전승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 1994

부산대학교 박물관, 울주 양동유적 조사 개보, 1985

새한건축문화연구소, 아산외암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 연구보고서, 1990

새한건축문화연구소, 아산군, 외암리 민속마을, 1983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양동마을 이야기, 1992

